

스펜서
더블류 김볼,
제 12대 대관장

성도의벗 7
1974

영감의 메시지

1974년 7월호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 (1969년 10월 139차 연차 대회 말씀)

나는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났습니다. 농작물이 한창 자랄 기간에도 비는 충분히 오지 않았으며, 심지어 강물조차 충분하지 않아 수많은 관개 시설용 저수지나 수 없이 넓은 땅에 물을 댈 수가 없었고 따라서 모든 농작물에 물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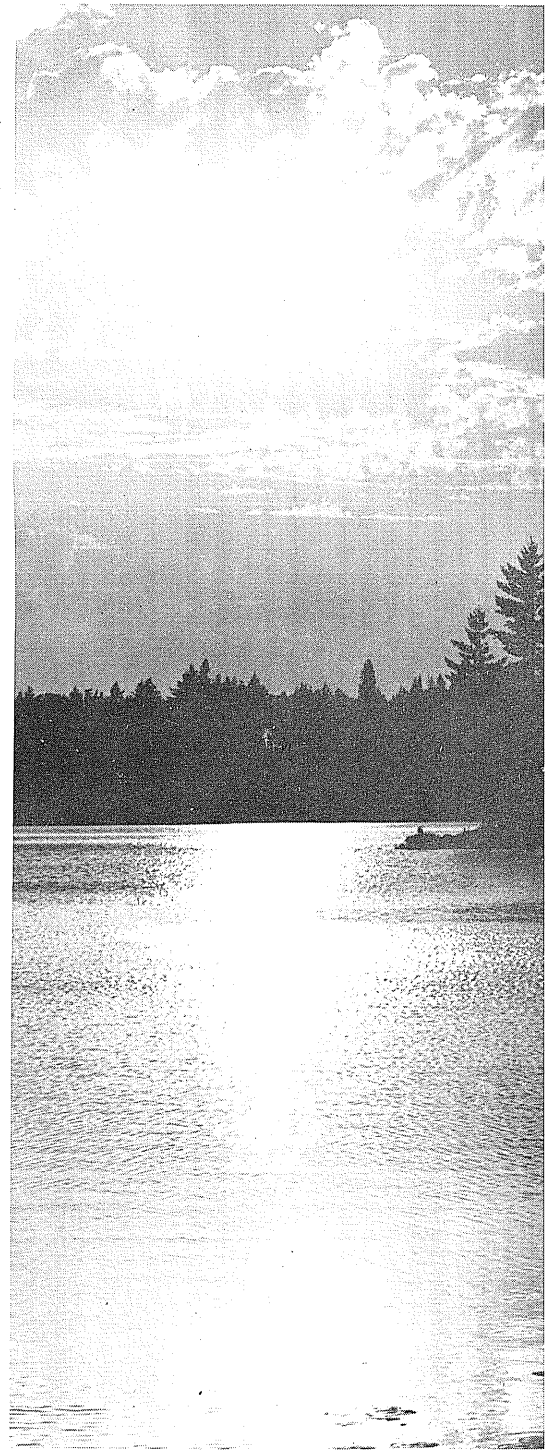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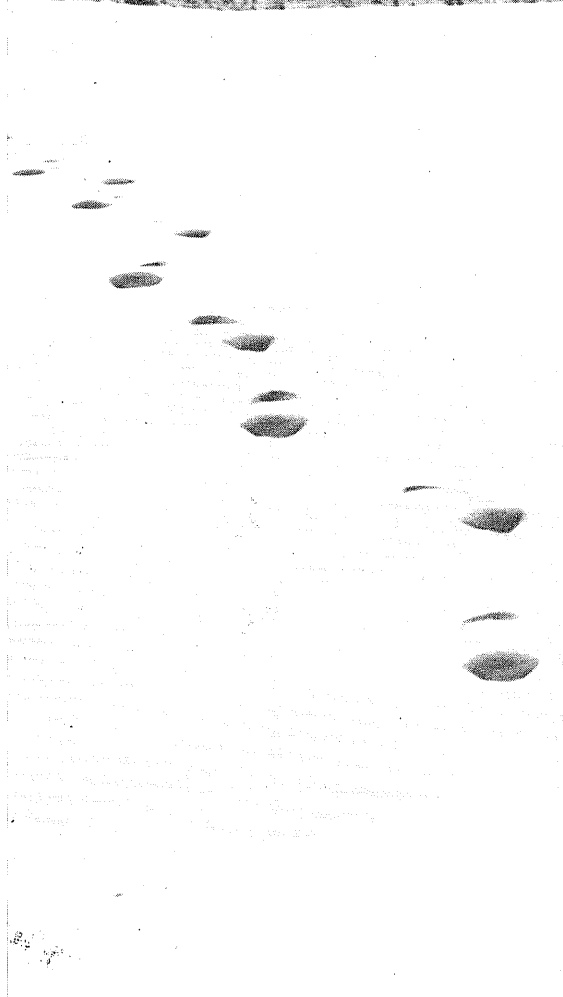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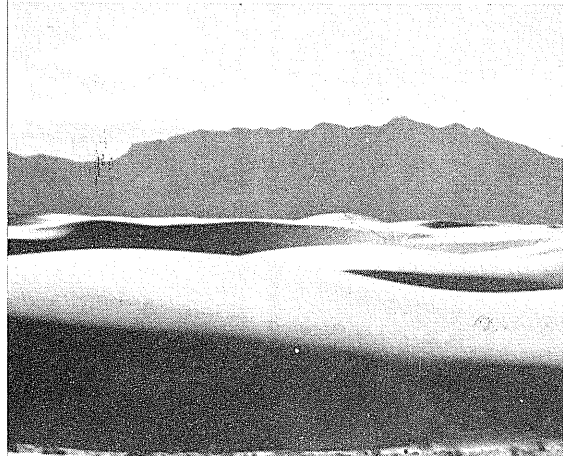
우리는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하기를 배웠고 항상 비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높은 댐을 쌓아 가을, 겨울, 봄에 내리는 빗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저수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곰곰히 생각하다가 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가정 복지 프로그램에 따라 하는 것과 같은 음식물 저장 창고, 7년의 기근 동안을 보호해 주었던 애급 땅에 요셉이 세운 곡물 창고 등 여러 가지 저장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장차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의 창고, 생활에 불안을 안겨다 주는 두려움의 홍수를 막아 줄 용기의 창고, 흔히 발병하는 전염병에 이길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의 창고, 선함의 창고, 정력의 창고, 그리고 신앙의 창고 등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심을 잘 간직해야 세상이 우리를 압박해 올 때 굳건히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부패한 세계에서 우리의 힘을 빼앗고, 영적인 활력을 갈취하고, 젊음을 속세로 잡아 당기고자 유혹할 때 우리에게서 그들을 유혹이 많은 심대 시절과 그 후의 파란 많은 생애에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창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단조로운 생활과 어려움,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순간과 실망, 환멸과 역경, 궁핍과 혼란, 그리고 좌절로부터 진저 내 줄 신앙이 우리에게서 필요합니다.

이러한 창고를 누가 짓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에게 양친을 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㉔



벚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 비범한
 앤 엘튼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즈라 테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4년 7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 108호

발행인 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3-5331

발행소 : 서울 중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1409
 인쇄인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 건수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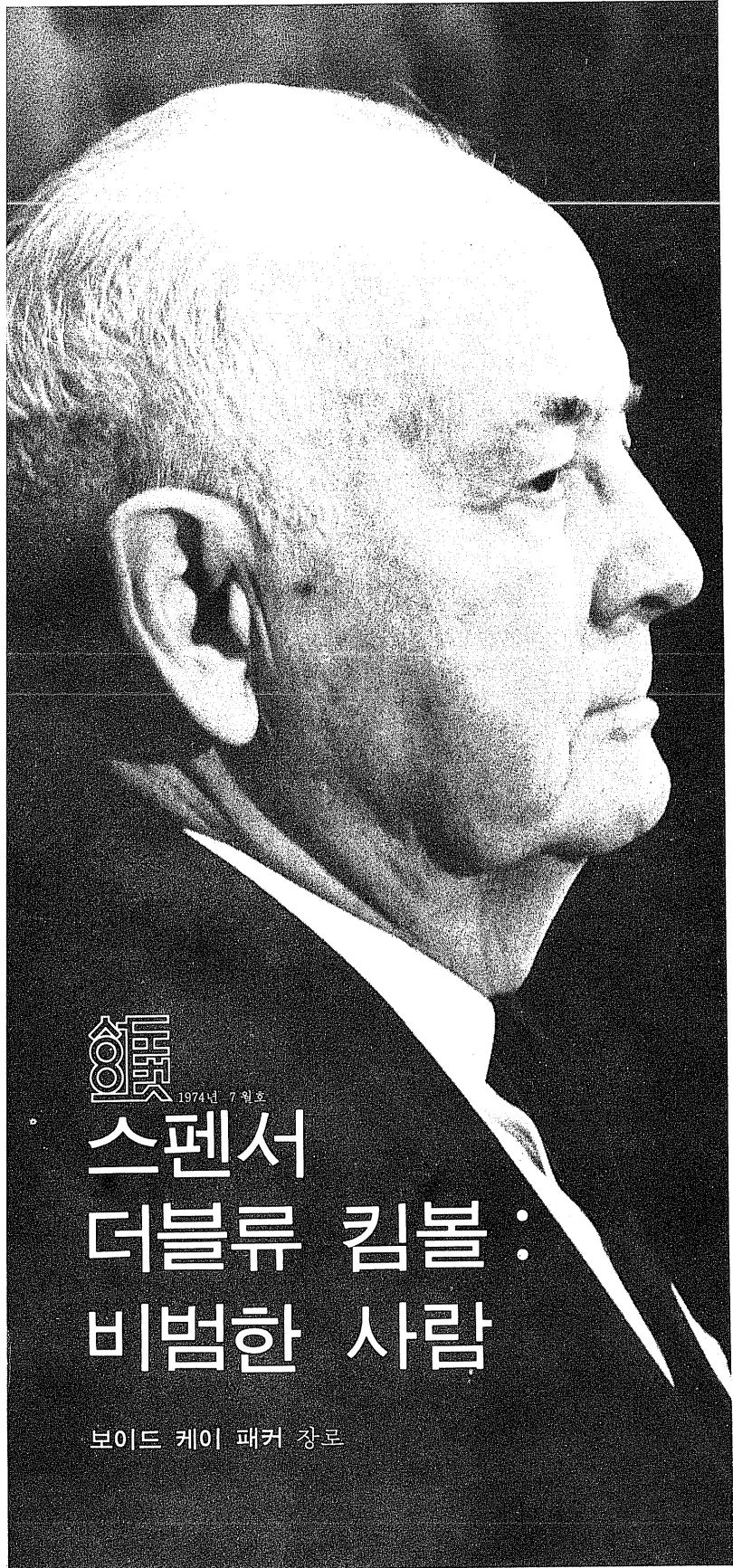
영감의 메시지		
스펜서 더블류 킴볼 ; 비범한 사람	2	보이드 케이 패커
카밀라. 아이링 킴볼 자매	8	마우린 전센 와드
계약성서의 기원	11	키이드 에이치 메서비
현대의 계시-계약성서의 창	17	로버트 제이 매튜스
계약의 인물에 관해 알게 된		
요셉 스미스	19	
질의 응답	20	
모든 것 잘 되리	21	마가렛 시 리차즈
사랑스러운 친구들	22	
심심풀이	25	
외로운 마차	26	루시 팔
매리너 더블류 메릴 장로	29	
후랭크린 드웨이 리차즈 장로	31	
경계하라	32	해롤드 비 리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	36	해롤드 비 리
용기를 가지라	39	고든 비 힝클리
계시	42	스펜서 더블류 킴볼
선교 부장단 메시지	46	
내외 소식	47	

고문 위원회

교내 연락 책임자,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번역 및 배부 책임자, 존 이 카
 교회 잡지 책임자, 도일 엘 그린
 교육자료 책임자,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정가 1권 150원 1년분(송료포함) 국내 1,20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복제불허

1974년 7월호 성도의 벚 제10권 제7호



1974년 7월호

스펜서 더블류 김볼 : 비범한 사람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김 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은화 한 모습으로 아기를 들여다 보는 어머니가 자기 아기가 자라서 교회의 대관장이나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팔에 안긴 아기를 어머니는 위대한 정치가요 지도자요 예언자가 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이러한 꿈이 실현되기도 합니다. 어느 어머니는 셰익스피어를, 어느 어머니는 미켈란젤로를, 또 다른 어머니는 에이브라함 링컨을, 또 어느 어머니는 요셉 스미스를 낳아 주셨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도덕을 운운하나 자신이 도덕적 범칙을 저지르고 있을 때, 입으로는 태연을 가장하고 있으나 마음은 방황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나 결코 찾지 못할 때’, (암 8 : 12 참조) 파오가 던져버려져야 하고 영적인 암흑에 광명의 빛이 들어와야 하며 하늘이 열려야 할 때에, 어린 아기는 태어납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1960년 4월 4일 대회 말씀)

스펜서 더블류 김볼도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처럼 보잘 것 없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사업가나 백성의 지도자나 연설가나 시인이나 음악가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겸비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가정의 축복사, 사도, 예언자, 교회의 대관장을 예비하십니다.

그의 생애는 다른 사람이라면 거의 이겨내지 못했을 용기와 인내와 잇달은 시험으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대관장님은 어린 시절에 안면 마비를 일으킨 적이 있으나 그것은 신권의 권능으로 치료되었습니다. 또 한번은 익사 직전에 구출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1세가 되던 해에 열 한 번째 아기를 가진 그의 어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아버지와 함께 좀더 의료 설비가 잘 되어 있는 솔트레이크시티로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김볼가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히 귀가하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어린 스펜서는 홀에 모인 그의 동생들을 만나러 교실을 뛰어 나갔습니다. 모두 집으로 달려가 보니 무더 감독이 제쳤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팔 안에 감싸 안으면서 그는 사랑과 고뇌에 찬 음성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단다”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이들에게는 훌륭한 제도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 세 살이 되었을 때 장티푸스에 걸려 큰 일 주일 간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천연두도 앓았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역경이 뒤따랐으나 이를 아는 사람은 그를 제외하고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십이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에 그는 심한 심장병으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의사는 그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평소 사랑하는 인디안들과 함께 있고 싶어했습니다. 고든 알 부캐넌 형제가 그를 아리조나주 깊은 소나무 숲에 있는 포라카 형제 부부의 캠

프로 데려 갔으며, 거기서 킴블 장로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힘을 되찾을 때까지 수 주간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캠프장에서 보이지 않았습다. 아침 식사 시간까지도 나타나지 않자 포라카 형제와 인디안 친구 몇 명이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캠프에서 수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큰 소나무 밑에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읽고 있는 그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의 놀란 모습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6년 전 오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증인으로서 나는 오늘 하루를 그와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의 심장병은 재발되었으나 그는 오랫동안 누워 있지 않았습다.

1957년 후두에 생긴 병이 후두암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번은 그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수술을 받기 위해 동부로 갔습다. 해롤드 비리 장로가 동행하였습니다. 수술받을 준비를 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외치는 사명을 가진 자기가 목청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주님께 말씀하면서,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심히 걱정하였습니다.

리 장로는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축복과 기도의 결과로 수술은 의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쉽게 끝났습다.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음성을 잃게 되었으나 새로운 음성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설득력있고 감미로우며 호소하는 듯한 말일성도가 즐겨 듣는 음성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일하였습니다. 면담 중에도 질문에 대한 답을 타자로 찍어 주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냈습다.

그때 시험이 왔습다. 그가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설교를 하게 될까?

그는 첫 연설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 갔습다. 아리조나 출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를 대동하고 그레햄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여 연단에 섰습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내가 스테이크 부장으로 일했던 곳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말할 수 없어도 그를 가장 아끼는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다.

도처에 사랑이 흘러 넘쳤습다. 킴블 장로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한번은 아리조나의 어느 대회에 가던 중 그의 차가 카이밥 숲 빙판에서 미끄러져서 산길을 굴러 산 밑도로로 떨어졌습다. 다행히 급히 손을 쓸 수 있었습다. 킴블 자매는 심한 상처를 입고 유타주 카납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다. 아내를 입원시킨 후 그녀의 청을 받

성도의 벗 1974년 7월호

아들여 그는 버스를 타고 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후두암이 재발했을 때에도 그는 치료를 받아가며 사무실에서 집무했습니다.

그는 안면 근육의 마비를 일으키는 벨스 팔시라는 병도 앓았습니다.

이년 전에 의사는 심장의 초기 장애를 고치기 위해 심장 수술을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의 친지들은 그가 내려야 할 결정의 괴로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의사마저도 고개를 휘저었으니, 이는 73세의 고령으로 심장 보수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통계학상으로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의사는 이 비범한 사람에게 수술을 실시했고, 의사는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께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수술 중 가장 위험하고 복잡한 수술이었습니다”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 시련의 경험이 잇달아 있었으나 이상에서 든 것들은 그가 극복해 낸 장애들 중 가장 특이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그는 놀라운 인내심과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망을 스스로 극복했으며 한 가지 약속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의 주치의는 다음과 같은 기쁜 소식을 보고하였습니다.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우리는 형제님의 특이한 신체 구조와 기능에 그저 감탄을 금



부친의 무릎에 앉아있는 스펜서,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는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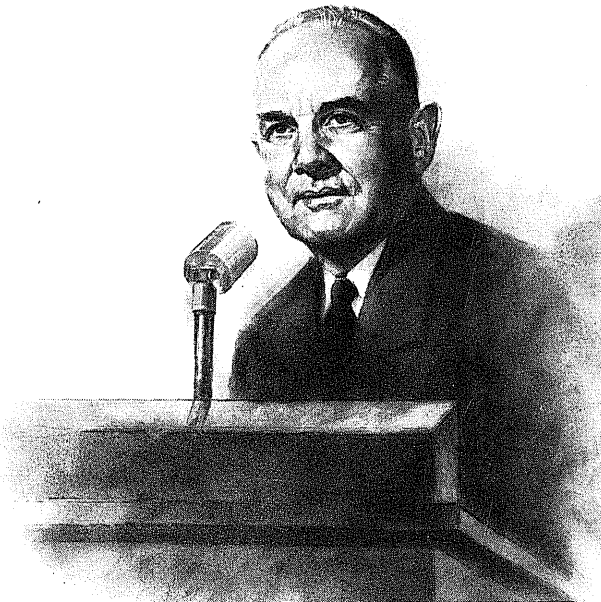
앤드루 킴블, 킴블 대관장의 부친

올리브 윌리 킴블, 킴블 대관장의 모친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성임되기 전에 것처럼 철저하고 완벽한 신체 검사나 시험을 받고 교회를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제님은 강인한 체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장의 기능도 지난 수년 동안보다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형제님이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고도 이 새로운 부름을 수행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킴블 대관장님 자신도 여러 면에 경험이 많은 의사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적인 복리를 도와 주는 의사입니다. 그의 노력은 많은 도덕적인 암을 치료하였고, 인품의 결점을 없애 주었으며, 수많은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였습니다. 영적인 망각 상태에서 구원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준비하여 “용서가 낳는 기적”이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저서에 있는 조언을 통해서 선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삶에 질서를 확립해 주었으며,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보다도 더욱 큰 시험이 있었으며, 이것은 내용이 너무도 성스러워 발표하기조차 꺼려지는 것으로 그가 십이사도 형제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스테인크 제간 대회에 지명을 받고 대회에 참석하던 중 두 번이나 그는 대회와 관련된 일이 아닌 일로 악마의 힘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의 조부인 히버 시 킴블이 사도로서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겪었던 것과 비슷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처음 숲 속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경험했던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그를 겸손히 주님의 권세에 의존하게 하였

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와 함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훌륭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련이 있었지만 그는 유우머를 잃지 않았습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와 함께 여행을 하면 웃음이 떠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을 늘 기쁘게 해 줍니다. 그의 풍부한 유우머는 항상 높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다.

그는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 그와 악수를 한 사람은 그의 순수하고 따뜻하고 진지한 태도를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는 개개인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그가 보여 주는 예의에 감명을 받습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가 중노동을 즐겨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복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대관장단은 “노동은 교회 회원의 생활을 이끄는 하나의 원리로 재확립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는 일을 즐겨 하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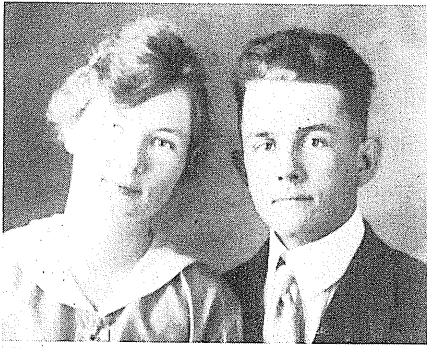
일에 대한 축복은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되어 왔습다.

킴블 대관장의 가족과 친지와 동료는 그가 쉬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압습다. 그는 항상 일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오랜 시간을 일하며 쉬는 시간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한두 번 정도 10분간 누워 수면을 취하며, 대회에 참석할 때는 감독이나 고등평의원 사무실에서 간단히 휴식을 취습다. 그는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복잡한 일들을 처리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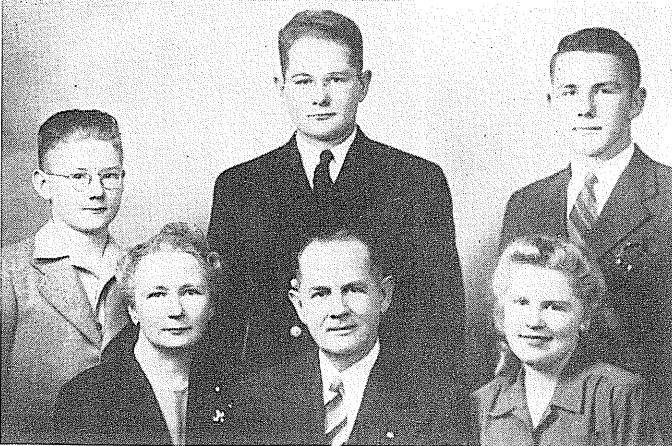
한번은 유타주와 아이다호주의 경계 부근 고속도로에서 킴블 장로님 내외분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북부에서 개최되는 대회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킴블 자매가 운전을 하고 있었으며 킴블 형제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무릎 위에는 낫익은 작은 타자기가 놓여 있었으며 그의 양 옆에는 서류들이 있었는데, 이때가 그에게는 남을 돕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여행을 한 사람이면 알듯이 이 이동 사무실은 현실적으로 일하는 그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대부분은 모든 사람처럼 똑같은 원천에서 힘을 얻으나, 그분만이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원천은 한 마디로 말해서 “카밀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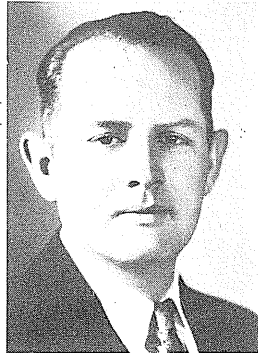
카밀라 아이링은 아리조나 태쳐에 있는 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아 그곳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스펜서는 멕시코의 식민지에서 온 이 아름다운 소녀에 마음이 끌렸습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판초 빌라의 군대가 진주해 오기 전에 멕시코를 떠났습다. 그녀는 부모로부터 계속 공부하라는 권고를 받아 제한된 학비로 브리검 영 아카데미에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건장하고, 잘 생겼으며,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과 카밀라 김볼
자매님의 신혼 때 모습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았을 때의 스펜서
더블류 김볼 가족



김볼 대관장이 스테이크 부장단의 일원으로
일하실 때 모습

사도들의 사증장: 마
크 이 피터슨, 매튜 카
울리,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에즈라 테프트
벤슨, 해롤드 비 리장
로가 반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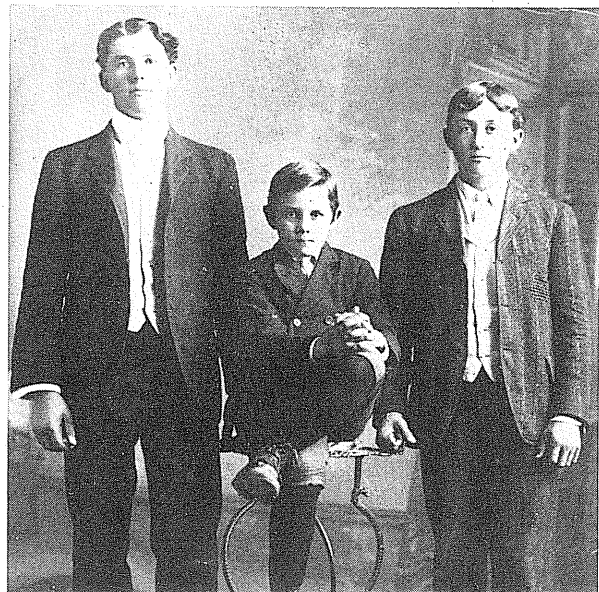
김볼 장로님이 수집하
신 인디안 수공예품들
에서

행

예언자의 약력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봉사 활동을 한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는 교회 대관장으로서는 책임을 받았다. 다음은 김볼 대관장의 생애에 있었던 중요한 일을 연대별로 요약한 것이다.

- 1895년 : 3월 28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앤드루와 올리브 올리 김볼 부처의 6남으로 출생.
- 1898년 : 5월 가족과 함께 아리조나주 태쳐로 이사. 부친이 이곳 세인트조셉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음.
- 1906년 : 6월 6일 축복사 사무엘 크래릿지로부터 축복을 받음. 언젠가 레이맨인에게 복음을 전할 날이 이르리라는 축복을 받음.
10월 18일 어머니가 솔트레이크시티의 병원에서 별세함. 11명의 자녀 중 8명이 그때까지 살아 남았음.
- 1907년 : 10월 5일 조지 에이 후프에 의해 침례를 받고 존 에이 내쉬에 의해 확인받음.
- 1909년 : 주일학교 교사가 됨.
- 1910년 : 12월 10일 제임스 엘 월킨스로부터 아론 신권의 교사에 임직됨.
- 1914년 : 최우수 성적으로 아리조나주 지라 아카데미를 졸업함.
6월 6일 부친에 의해 제사로 성임됨.
9월 15일 에드윈 에스 데이비스에 의해 멜기세덱 신권의 장로에 성임됨.
10월 16일 제이 고든 김볼에 의해 70인에 성임되고, 중부 선교부로부터 떠나 28개월간 봉사함.
- 1917년 : 11월 16일 카밀라 아이링과 결혼함.
- 1918년 : 1월 1일 세인트조셉 스테이크 서기로 부름을 받아 부친 밑에서 봉사함. 1938년 2월 19일까지 스테이크 서기로 유임함. 6월 1일 아내와 함께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인봉받음.



김볼 대관장의 세 형제 : 앤드루 고든, 스펜서 올리, 델버트 김. 1906년 때 모습

풍부한 유우머와 명석한 두뇌와, 음악적 자질을 몸에 지닌 젊은이의 마음을 사로 잡았습니다. 곧 구애를 받았으며, 몇 주 후에는 신전 결혼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았고 곧 신전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킴볼 자매도 역시 비범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지덕을 겸비하고 의지가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가족은 킴볼 대관장에게는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킴볼 형제와 자매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자녀를 두고 싶었지만 영의 자녀를 이 지상에까지 인도하는 데에는 종종 큰 장애가 있기도 마련입니다.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4자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셋이 선교 사업을 마쳤고 4명의 자녀가 모두 신전 결혼을 하였습니다. 26명의 손자, 손녀와 10명의 증손자, 증손녀를 보았습니다. 모든 다른 부모와 같이 킴볼 장로 내외분도 가족을 위해 항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가 모두 영을 지닌 존재이며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깊이 느껴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로서,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로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시인입니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준비하는 그의 말씀은 아름다운 서정시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그 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시인은 예언자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께서서 우리는 시인인 예언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년간 행해 온 그의 말씀은 주로 레이먼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도는 그의 성역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그분 만큼 불문경의 메시지를 레이먼딘들에게 전하는 일에 관심을 쏟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들이 영원토록 버림을 받지 않게 하리라고 하신 주의 언약을 알게”(불문경 표제부) 하기 위해서 그분 만큼 열의를 보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미대륙에는 약 6000만명의 레이먼딘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멕시코, 중남미 여러 섬, 북미 인디언 지역에서 교회가 크게 번창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사도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 가운데서 권고하고 격려하며, 일해 오셨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리하이의 후손들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부친께서는 선교부장으로 인디언 지역에서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선천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나 봅니다. 이러한 사랑은 부친이 우리들에게 인디언의 노래를 들려주시며, 인디언 친구로부터 선물받은 기념품이나 그림을 보여 주시던 어린 시절부터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9세 되던 해 축복사인 사무엘 클래릿지 형제가 준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축복문

인디언이 그에게 준 이름은 와시테 - 호 - 왓블리로, 여기에는 “온 세상을 날라 다니면서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의 한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대는 많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나 특히 레이먼딘들에게 더 많이 전하리니, 이는 주님께서 그대에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권세와 언어의 은사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대는 그들이 잘 조직되어 이 백성들 주위를 둘러싼 보루로서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나는 언제부터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항상 리하이의 아들과 딸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져 왔습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 1947년 4월 6일, 대회 말씀)

1946년 9월 13일 킴볼 대관장님은 그의 일지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의 요청을 받아 그의 사무실로 찾아 갔다...우리는 선교부 내에 있는 나바호 인디언에 관해서 상의했다. 그때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자 형제님께서 인디언들을 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무시되어 왔지요. 형제님이 인디언들을 모두 맡으세요. 전세계의 인디언들을 보살필 책임은 드립니다. 섬나라 인디언도 물론 포함해서 말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에게 전에도 두 번이나 받은 이러한 책임은 문자 그대로 축복사의 축복을 성취시켜 주었다고 말했다...그는 전세계에 있는 모

든 인디안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내가 이 위원회를 힘차게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사업이 사랑의 봉사로만 여겨지는 김블 형제에게는 이러한 집과 명에는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이 성역을 배푼 기록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을 든다면 바로 레이먼인들에게 보인 사랑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블 대관장님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가 레이먼인 지역을 여행하면서 수집한 기념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인디안 부족에 입양되어 이름을 받을 때 주어진 머리 장식, 호피 인디안의 그림, 칠리 인디안의 그림, 북다코다 파인릿지에 있는 어린 소녀 투덕스가 정성들여 만든 인형, 아마존 인디안의 금속제 장식품, 또 다른 부족의 활과 화살, 볼리비아 인디안 남녀의 아름다운 조각, 기타 여러 섬나라 인디안으로부터 받은 기념물이 그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인디안 이름은 와시테—호—암블리입니다. 직역을 하면, “고운 음성을 가진 독수리”입니다. 레이먼인 형제들은 그 말을 “진리의 소식을 소리높여 외치며 세계 만방을 날아 다니는 사람”이라고 풀이합니다.

이분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관장하시는 비범한 분입니다. 그가 사도로 성임되는 날 그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며 고대에 있었던 특별한 증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특별한 증인을 부르셨으니, 스펜서 더블류 김블, 앤 엘돈 태너, 메리온 지 롬니, 에즈라 태프트 벤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러 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바로 그러한 분들입니다. 주께서 고대에 성임하셨던 분들처럼 같은 권능을 지닌 사람이 같은 증인에 의해서 지 지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인 스펜서 더블류 김블 장로가 주님의 교회의 대관장입니다.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위의 사실을 증거합니다. 圖

- 1924년 : 8월 31일 부친이 별세함.
9월 8일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에 의해 대제사로 성임되고, 세인트 조셉 스테이크 부장단 제 2 보좌로 부름을 받음.
- 1938년 : 2월 20일 마운트 그래햄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음.
- 1943년 : 7월 8일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을 대신하여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으로 부터 십이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음.
10월 7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에 의해 사도로 성임됨.
- 1946년 :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으로부터 축복사의 축복에서 선언된 대로 레이먼인을 위해 일하도록 특별한 지명을 받음.
- 1951년 : 교회 인디안 보호 위원회의 일원으로 범미 인디안 대회에 파견됨.
- 1952년 :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와 멕시코 및 중남미를 순방하여, 그곳을 복음을 전할 땅으로 헌납하고, 멕시코 선교부를 분할하고, 중미 선교부를 조직함.
- 1955년 : 4월 13일부터 9월 11일까지 아내와 함께 구라파 선교부를 순방하여 놀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영국, 화란, 불란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동서독 등지에서 선교부가 있는 116개 도시를 방문하고 9월 11일 스위스 신전 헌납을 마치고 귀로에 오름.
- 1957년 : 후두암으로 수술하여 일시적으로 목청을 잃음. 8월에 퇴원함.
- 1959년 : 2월 7일 남미 세 선교부를 향해 7주간의 여정에 오름. 아내를 대동함.
- 1960년 : 10월에 아내와 함께 남태평양 18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을 4개월간 순방하면서 4개의 새로운 스테이크를 조직함.
- 1961년 : 십이사도 정원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부처 및 부인을 대동하고 12월에 구라파와 성지를 향해 떠나 구라파에서 여러 곳의 스테이크 대회를 관리하고 2월에 귀국함.
- 1964년 : 5월 28일 브라질과 우르과이를 순방함.
- 1966년 : 칠리, 알젠틴, 우르과이, 브라질을 방문함.
- 1970년 :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서거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권한 대행.
- 1972년 : 4월 12일 심장 수술을 받음.
7월 7일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의 서거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됨.
- 1973년 : 12월 30일 해롤드 비리 대관장의 서거로 교회 대관장으로 성임됨.

일 문헌에 가셨을 김블 대관장님 김블 자매님의



197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리대관장님 함께

카밀라 아이링 킴볼 자매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줄곧 남편이 교회 직분을 맡아 오며 가진 책임감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교회의 대관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킴볼 자매는 그러한 책임감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1917년 11월 16일 결혼식을 올린 지 3주만에 스테이크 서기로 부름을 받은 이래 계속 남편의 교회 직책을 도와 온 킴볼 자매는 현대 예언자의 아내로서 갖는 느낌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갖는 느낌을 “노력”이라는 한 마디 말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그것이 중요한 직분이라고 느낍니다. 저는 항상 막중한 책임을 가진 남편을 좀더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그의 영향력에 해를 미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남편의 직분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을 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일 거예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부름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활기있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나는 웃기를 좋아하지요.” 그녀는 교회

회원들로부터 특별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말일성도 여성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복음을 사랑하며, 인간이 편안함이나 안정감이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길임을 압니다. 나는 복음이 참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킴볼 자매는 시에라 마드레 산맥이 있는 멕시코 코로니아 주아레즈에서 자랐습니다. 카밀라 자매가 17세가 되던 1912년까지 평화롭고 번창하는 작은 몰몬 마을에서 그녀의 가족은 재미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마을에 멕시코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쳐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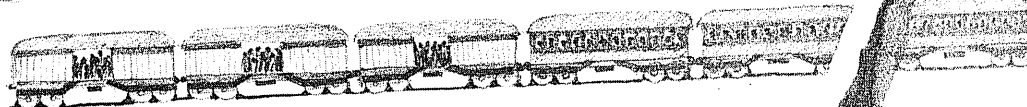
그해 6월 카밀라 자매의 아버지와 가족은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값진 가구와 물건을 지하실과 마루 바닥에 둔 채 카밀라 자매의 가족 열 세 명은 큰 가방 하나만 가지고 떠났습니다. 카밀라의 부친은 수 주일 내에 다시 돌아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카밀라가 고향의 집을 다시 보게 된 것은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다음날 그녀의 가족과 다른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들은 텍사스주 엘파소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1,000여명의 승객을 실은 작은 기차가 서서히 정거장을 떠났습니다.

카밀라 아이링 킴볼 자매



1974년 7월호



“연착한 기차가 뜨거운 7월의 태양을 받으며 갈 때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차 안은 사람들로 뭉뚱하게 들어 차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서 있을 틈도 없는 칸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혁명군의 공격을 받게나 되지 않을까 하고 늘 걱정했습니다”라고 킴볼 자매는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엘파소에서 카밀라 가족과 다른 몰몬 피난민은 낡은 담요를 몇 개 나누어 가지고 목재를 쌓아 두는 마당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카밀라는 집없이 고생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고 마냥 즐겁기만 했던 코로니아 유아레즈의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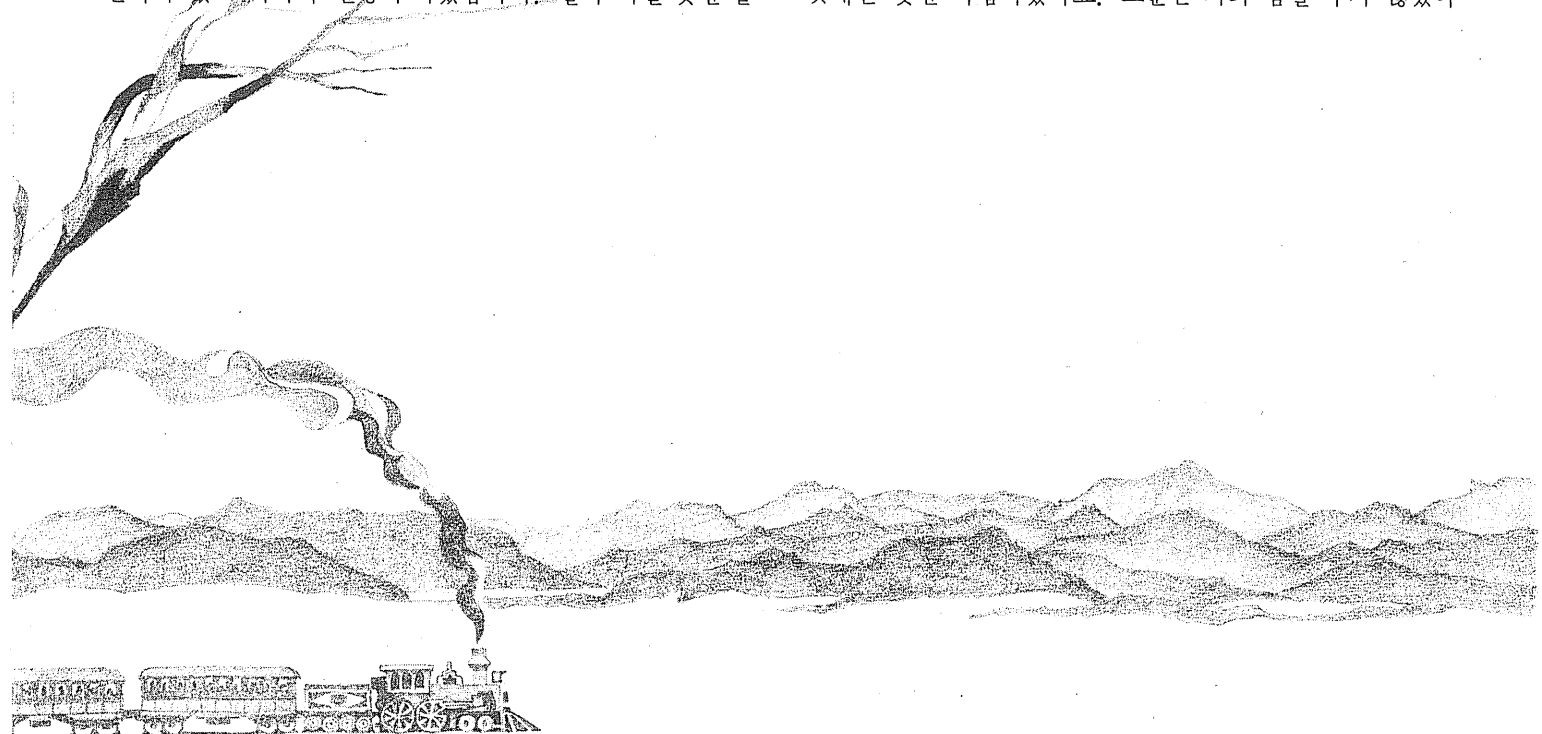
카밀라의 가족이 엘파소에서 묵은 지 몇 주만에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임 승차권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카밀라는 삼촌인 칼 아이링이 있는 유타주 프로보시에 와서 브리감 영 아카데미에 들어 갔고 거기서 학교를 마쳤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한 해였습니다”라고 킴볼 자매는 17세때 단신으로 프로보로 떠난 밤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서 가방속에 코트를 챙겼습니다. 콜로라도 산맥에 들어섰을 때는 눈보라가 휘몰아쳐 왔고 기차의 난방이 꺼졌습니다. 얼어 죽을 것만 같

았습니다. 나는 헌 담요를 두 개 가지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꺼내 덮지 않고 있다가 정말로 얼어 죽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꺼내 덮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먼 아이는 없었을 거예요.”

1914년 6월 그녀는 최고의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에서 가정학을 전공하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유타주 칭클리에 있는 밀라드 아카데미에서 2년간 교편을 잡았으며, 그후 유타 주립 대학에서 1년간 공부했고,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킴볼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 중의 하나도 인간의 마음을 살아 생동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킴볼 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즐겨서 끊임없이 지적 능력을 개발해 왔습니다.

유타 주립 대학을 마친 후 카밀라 자매는 그의 가족이 옮겨 온 아리조나로 와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킴볼 대관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도회에서 였지요. 별로 비밀스러운 일은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죠”하며 킴볼 자매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곳에는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저와 춤을 추지 않았어



요. 춤을 추려고도 하지 않은 것 같았지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났지요.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후 그는 선교사로 나갔고 귀환해서 많은 여자 친구들과 사귀었지요.”

그 다음에 그녀가 그를 본 것은 그가 선교사를 마치고 귀환한 후 였습니다. 어느 해 가을 저녁 카밀라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젊은 스펜서 더블류 킴블 형제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이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고 ‘미스 아이링이 아니세요’ 하면서 자기는 친구를 만나러 우리 동네를 간다더군요. 그가 자신을 소개한 다음 우리는 같은 버스를 탔지요. 그는 나를 만나러 찾아 가도 괜찮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정이 싹틔는데 곧 구애로 바뀌었지요.” 다음 주 스펜서는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그녀는 그날 테이트가 있어서 머리에는 쥘을 한 채 준비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카밀라의 테이트 상대자는 스펜서가 떠나기 전에 집에 왔기 때문에 그날 저녁은 세 명이 테이트를 한 셈입니다. 곧 카밀라와 스펜서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9월달에 만나서 11월에 결혼을 했지요”라고 카밀라는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킴블 자매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생활을 찾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노력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남편과 네 자녀와 27명의 손자, 손녀와 그의 많은 친구들은 그녀가 그들의 삶에 큰 기쁨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킴블 자매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결혼과 인생을 복음의 태도에서 보려고 한 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이란 영원한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가 자라온 가정 환경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재정적으로도 풍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절약했고, 돈에 대한 서로의 가치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나 교육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킴블 자매가 행복을 이룩한 과정은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복음대로 생활하면 행복해집니다. 복음은 모든 것들 다 포용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니까요”라고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킴블 대관장 부처는 유타주 보네빌 스테이크 모뉴먼트 파크 제2 와드의 회원이며, 킴블 자매는 와드 상호부조회에서 영적인 생활 공과 과정을 담당한 교사입니다. “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나는 건설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바쁜 일과를 보내는 일이 좋다고 생각되요. 손을 놓고 한가로이 앉아 있지 못하는 성격이랍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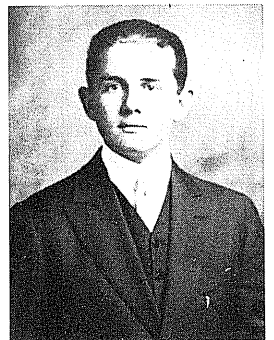
그녀는 상호부조회 공과가 매우 흥미로우며 폭 넓은 사실을 다루어 준다고 말합니다. “나는 상호부조회를 좋아합니다. 나는 왜 교회의 자매 중에 상호부조회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킴블 자매는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받지 못했거나를 막론하고 상호부조회 공과는 모든 자매에게 값진 교육을 보충해 주며, 또한 모든 자매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자신의 느낌을 피력했습니다. “여성이 지적으로 생동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나아가 들면 게을러지기 쉽고, 폭 넓게 독서를 한다거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없게 되지요. 나는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민감하게 알아서 그들에게 다칠 유혹을 사전에 막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요. 할머니도 손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요. 내가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점은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나 복음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복음의 계획을 100퍼센트 실천한다면 그는 완전해질 수 있는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녀의 찬란했던 삶은 일순간의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잊고 세상적인 헛된 자만심을 버리고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온다는 것을 그대로 대변해 줍니다. “나를 미덕의 본보기인 양 말하지 마세요. 평범한 인간일 뿐이니까요”라고 그녀는 말을 끝맺었습니다. 그러나 킴블 자매를 아는 사람은 잠언의 다음 성구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잠 31 : 10, 18) 

스펜서 더블류 킴블 장로, 1914~16년 센트럴 스테이크 선교부에서 봉사함.



킴블 자매님이 지라 아카데미에서 교편을 잡던 때 모습. 이때 킴블 자매님은 킴블 형제님과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구약성서는 우리에게 낯선 책으로 보인다. 이 책은 오늘과 거리가 먼 옛날의 세계와 그 당시 백성들에 관해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전의 이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 즉 그 책의 기원과 그 책이 지닌 권능의 소리와 그 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 주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약성서를 경전으로 삼았던 베드로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벧후 1:20-21)라고 말했다.

베드로의 주요 관심사는 경전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에 관한 것이었으나 그는 왜 구약성서가 경전이며, 왜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것을 그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며, 왜 말일성도가 그것을 표준 경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교성 50:13-24, 68:1-5; 니일 22:2 참조) 성스러운 사람이 영감을 받아 말하고 주님의 백성에게 계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한 말은 권능을 지닌 말이 된다. (교성 28:2, 4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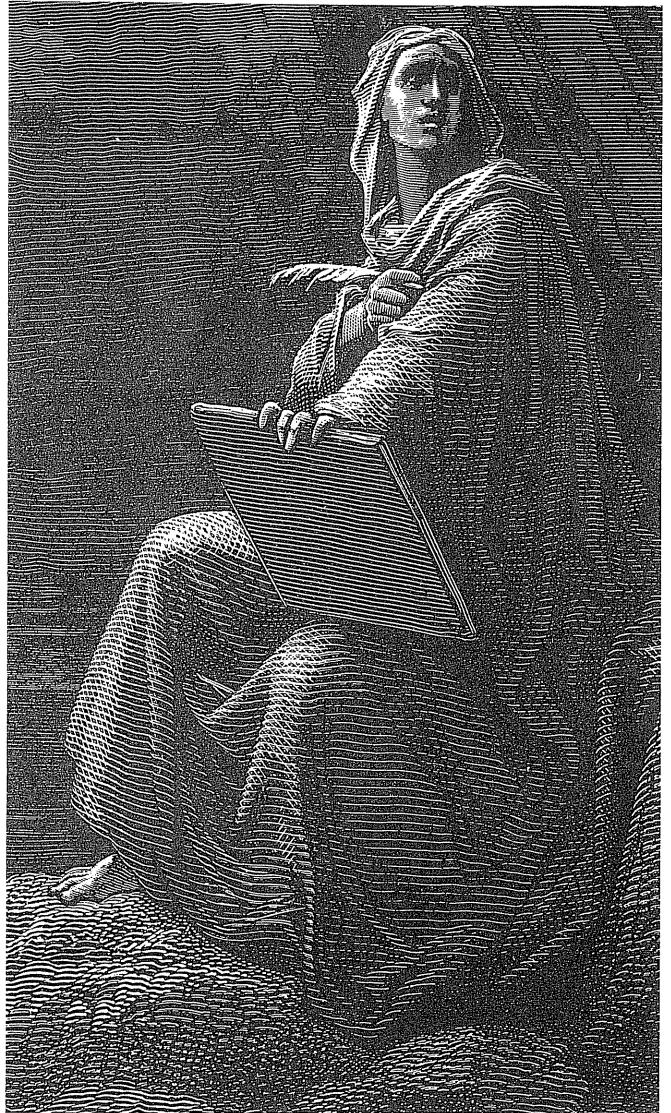
우리는 경전의 기록들이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안다. (이더 12:23-29) 우리는 구약성서에는 기록상의 과오, 번역상의 과오, 인간이 고의로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생긴 과오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모세서 1:23, 40-42; 니일 13:23-29) 그 책이 비록 영감받은 사람이 기록한 대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 내려 오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 가치가 오랜 동안 전해져 왔고 그 선한 영향력

구약성서

의 기원

키이드 에이치 메서비

1974년 7월호



이 인간의 마음에 영감을 주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약 6000년 전에 성스러운 기록의 첫번째 저자가 그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자기가 시도하려고 하는 그 기록 정리의 사업이 광대하다는 것과, 이러한 기록이 후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이해하였을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작가는 그들이 행한 일에 더 큰 비중을 두었음이 분명하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었다. 그의 기록에는 선택된 주님의 종의 계보선(모세서 6:8; 교성 107:40-42; 아브라함서 1:4)과 신권과 관련한 그 선의 권능(아브라함서 1:28, 31),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지식(모세서 6:45-71, 7:1), 창세의 기록(아브라함서 1:28, 31), 기타 주님이 주신 예언자의 가르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기록이 처음으로 아담 한 사람에게 의해서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후계자들이 썼을 것이며, 그들 중에는 에녹이 있는데, 그가 주님께서 성실한 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담의 후손들이 모인 대집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교성 107:53-57)

아담과 에녹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기록하였다. (아브라함서 1-5) 요셉도 역시 중요한 예언의 기록을 남긴 사람의 하나이다. (나이 3. 나이 4:1-2)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후세에 전해질 기록 정리에 관한 표준을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모세도 이러한 표준을 따랐기 때문에 모세 율법으로 알려진 그의 기록은 유대인이 사용한 경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의 기록이 것처럼 방대하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의 생존시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나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질 과거의 경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아담의 시대부터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약 2700년) 주님의 사업은 멜기세덱 신권의 성역과 율법에 의해서 관리되어 왔다. (교성 107:40-57, 84:6-17)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계명은 그들이 지니고 있던 신권의 권능과 일치했다. 계시가 기록되어, 그 기간 동안 주님의 자녀를 다스리는 경전이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모세의 추종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역의 기회를 주었으나 그들은 마음을 강박하게 먹고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주님은 계명을 폐기하셨으며 그들의 요구에 맞게 그의 일을 행하시는 방법을 수정하셨던 것이다. 따라서 주님께서서는 그들로부터 충만한 신권과 그 축복을 거두어 가셨던 것이다. 그대신 그는 그들에게 소신권인 레위 신권과 그에 따른 권능을 주었다. (모 13:28-30; 갈 3:6-29)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은 그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다. (교성 84:6-28; 영감역 출애굽기 34:1-2; 신 10:2; 히 4:10)

이들에게 주어질 새로운 계획은 아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때를 모세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라고 부른다. 이 경륜의 시대는 모세가 세운 구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새로운 입법자를 주님이 세우실 때까지 계속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입법자임) 그가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오고 새로운 경륜의 시대가 시작될 때 백성들은 이를 받아 들이고 구 율법을 새로운 율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했다. 모세는 그들에게 준비를 하도록 권고했다. (신 18:15-19; 나이 26:1, 32:6; 니삼 9:17-22, 15:1-10, 20:23; 요 5:45-47 참조)

그러므로 아담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확립된 멜기세덱 신권과 그 율법은 모세의 시대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것은 아담의 시대로부터 모세의 시대까지 교회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신권이 사라졌을 때 그 율법과 기록도 사라졌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앨 12:9-11; 이더 4:1-7)

아담에서 모세까지의 기간이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기간의 약 2배가 되지만 (아담에서 모세까

지 약 2700년이고 모세에서 그리스도까지는 약 1300년임) 창세기를 제외한 구약의 전부는 모세의 경륜의 시대의 확립과 존속에 관한 사실을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구약성서란 근본적으로 모세의 교회가 받은 계시나 이야기이며 창세기는 서론에 불과한 것이다. 모세는 과거의 기록의 편집자이며 창세기 저자라고 추측될 수 있다. (모세서 1:42, 2:1)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 주며,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들의 부름, 성약의 배경, 현재와 미래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갖는 책임 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발췌하여 실었을 것이다. (창 12:50)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2000년간이 9장에 담겨 있고(창 3-11장), 그 앞에 창세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다. (창 1-2장)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신권의 변화 및 어떻게 그 신권에 따른 율법이 주어져 모세의 경륜의 시대가 시작될 수 있었는지에 관해 말해 주고 있다. 이 기록에 담긴 모세의 율법은 그 시대의 기본적인 율법이 되었다. 그것은 오늘날 교리와 성약과 비슷한 기능을 하였다.

다른 예언자들은 이미 확립된 율법 위에 다른 율법을 더 세웠으나, 모세 5경은 다음 시대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녀들은 이 율법을 공부하고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율법은 그들의 권위 있는 지침인 쇠막대기였다. (신 6:1-9, 10:12-13, 5:28-31, 17:18-20; 수 1:5-8) 후대의 예언자나 지도자들은 행동의 표준을 이 책에서 구하였다. 모세가 죽자 이 율법도 닫히고 더 이상 추가되

“모세가 아담, 에녹,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의 기록을 편집하여 창세기를 만들었음이 확실하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더 높은 율법을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모세는 낮은 율법이 포함된 4권의 책을 창세기 이후에 저술했다.”

지도 않았다. 그대로 모세 5경으로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예언자가 나오게 되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 여호수아는 예언자라고 불리우지는 않을지 모르나 그는 영의 인도에 따라 행동한 사람이었다. (민 27:18) 유대인의 전설에는 그가 여호수아서의 저자라는 말이 있다. 그 책을 누가 썼는지 간에 그는 그 책을 쓸 수 있는 자료를 지은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사사기나 룯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사사기의 저자를 사무엘로 보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생각인데, 이는 그가 공적인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삼상 10:25) 군주제가 확립되기 시작했던 이 시기에 그때까지 정리해 오던 기록 방법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때부터 왕가의 일을 기록한 내용이 첨가되었으니 이것이 왕의 역대기이다. (열왕기 11:41, 14:29, 15:7, 15:31) 열왕기 저자는 이 기록을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도 여러 예언자의 예언과 계시를 참고하였다. (역상 29:29-30; 역하 9:29, 12:15, 13:22, 32:32, 33:15, 19) 이것과 다른 왕실의 기록을 참조하여 나온 것이 역대기이다.

니파이일서 5장 10-13절까지는 늦쇠판에 기록된 두 가지 기록과 특히 주님께서 니파이에게 지시하여 두 가지 판을 만들라고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큰 판과 작은 판을 모두 기록하게 되었다. (니일 9:3-4)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기록이 보존되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기록이 성경 편집자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열왕기나 역대기의 저자가 사용한 자료에 관해서 알게 되면 이 두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율법서, 예언서, 기록서 등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율법서이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하, 열왕기는 예언서로 분류된다. 분명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역대기는 이에 속하지 않고 기록서에 속한다.

이러한 책은 모두 오늘날처럼 편집자들에 의해 정리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그러한 책임을 맡은 사람은 선조의 사업을 편집한 물몬처럼 똑 같은 임무를 완수하였을 것이다.

성경 편집자의 손길을 찾아 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우리는 읽은 것으로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할 때에 직접 그것이 근거를 둔 자료를 살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편집자의 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빼거나 추가하는 일이 모두 그의 판단에 달렸다. 이러한 일에 임한 물몬의 모습과 그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얼마나 양심적으로 그 일을 수행했는가를 알면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 그는 첨가할 때(물몬의 말씀 5-7절)나 생략할 때(니삼 26:6-12, 28:25)는 언제나 주님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랐다.

그후의 예언자들(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의 열 두 명[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은 모두 자기의 이름을 딴 책을 썼다. 학계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말일성도는 누가 이 고대 기록을 썼으며, 이 기록이 편집되었으며, 얼마나 성스러운 책임이 맡겨지고 이행되었는가를 보여 주는 다른 경전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법칙에는 특별한 예외도 있으나, 이것은 욥나이사 8-11절에서 보듯이 예외이지 법칙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전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직접 볼 수 있고, 살아 계신 예언자가 다스리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예언자가 그의 백성에게 성역을 베푼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미래에 관해서는 예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언자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초월하여 내다 볼 수 있다.

예언자가 예언을 기록할 때 대개의 경우 필기자를 쓰게 된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였었다. (렘 36:1-4) 요셉 스미스도 그랬다. 그러나 그 말씀은 여전히 예언자의 말씀이다. 후세의 저자나 편집자도 예언자의 기록에 약간 손을 대었을지 모른다.

나머지 부분을 유대인들은 기록서라고 부른다. 이 책에는 시편, 잠언, 욥기, 솔로몬의 아가, 룻기,

“기원전 600년에는 기록을 모아 책으로 만든 것이 있었다.

그 당시의 경전에는 율법과 왕국의 기록과 오늘날의 구약성서에 나오지 않는 예언자(요셉, 지노스, 니움, 지노크)의 기록을 포함한 여러 예언자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음에 틀림 없다.”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우리는 이를 예언서로 분류함),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하가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은 니파이 시대의 경전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들은 바빌론에 포로로 있던 동안이나 그후에 첨가되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의 일부가 경전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으나 요셉 스미스가 영감을 받아 성경을 개역했을 때 완전히 빠뜨린 것이 하나가 있었다. 영감역 원고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솔로몬의 아가는 영감을 받아 적은 기록이 아님.” 말일성도는 그것이 왜 경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다른 책들은 어떠한가? 주님께서 “...의인의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리라” 교성 25:12)고 하신 말씀을 상기할 때 우리는 여러 사람이 쓴 히브리 노래인 시편이 왜 경전에 들어가게 되었을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성스럽고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나 시의 표계로부터 우리는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임을 알 수 있다. 이 노래는 강한 신앙과 영적인 힘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가 유대교와 분리된 이후에도 많은 기독교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욥의 간증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으

로 높이 평가하는 학자가 있다.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낯은 이념과 인간에게 대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에 나타난 신앙은 인류의 사상의 극치를 이룬다.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의 문학으로 분류되며 그 속에는 실생활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솔로몬은 이 두 권의 책과 아가의 저자로 여겨지고 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유대인이 바빌론의 속박에서 풀려난(기원전 538년 이후) 이야기를 적은 한 권의 책이었다. 이 책은 열왕기하나 역대기하에 끝난 유대의 역사를 기술해 준다. 에스라가 이 두 권의 책을 썼다고 추정된다.

에스더서는 외국에서 속박을 당하던 유대인들에게 큰 매력을 준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저자나 지어진 연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성서를 이루는 39권에 대해 살펴 보았다. 우리는 아담과 같은 인류 초창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관한 책을 썼으며 이들 책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합본으로 편집되었는지에 관해 알았다. 이러한 것들은 물몬의 예에서 보듯이 방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당대에 보다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다.

기원전 600년에는 기록을 모아 책으로 만든 것이 있었다. 그 당시의 경전에는 율법과 왕국의 기록과 오늘날의 구약성서에 나오지 않는 예언자(요셉, 지노스, 니움, 지노크)의 기록을 포함한 여러 예언자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음에 틀림없다. 니파이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오늘날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기록 보다는 훨씬 많은 기록이 추가되었다. 이 기간 동안 보다 많은 편집 사업이 행해졌었다.

우리는 구약성서의 39권을 이야기했으나, 유대인은 24권 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24권에는 우리의 39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으나, 성경 안에 있는 책의 수와 배열이 우리의 것 (킹 제임스 판)과는 다르다는 것을 언급해 둔다.

반면에 구교는 수와 배열이 다른 것은 물론, 유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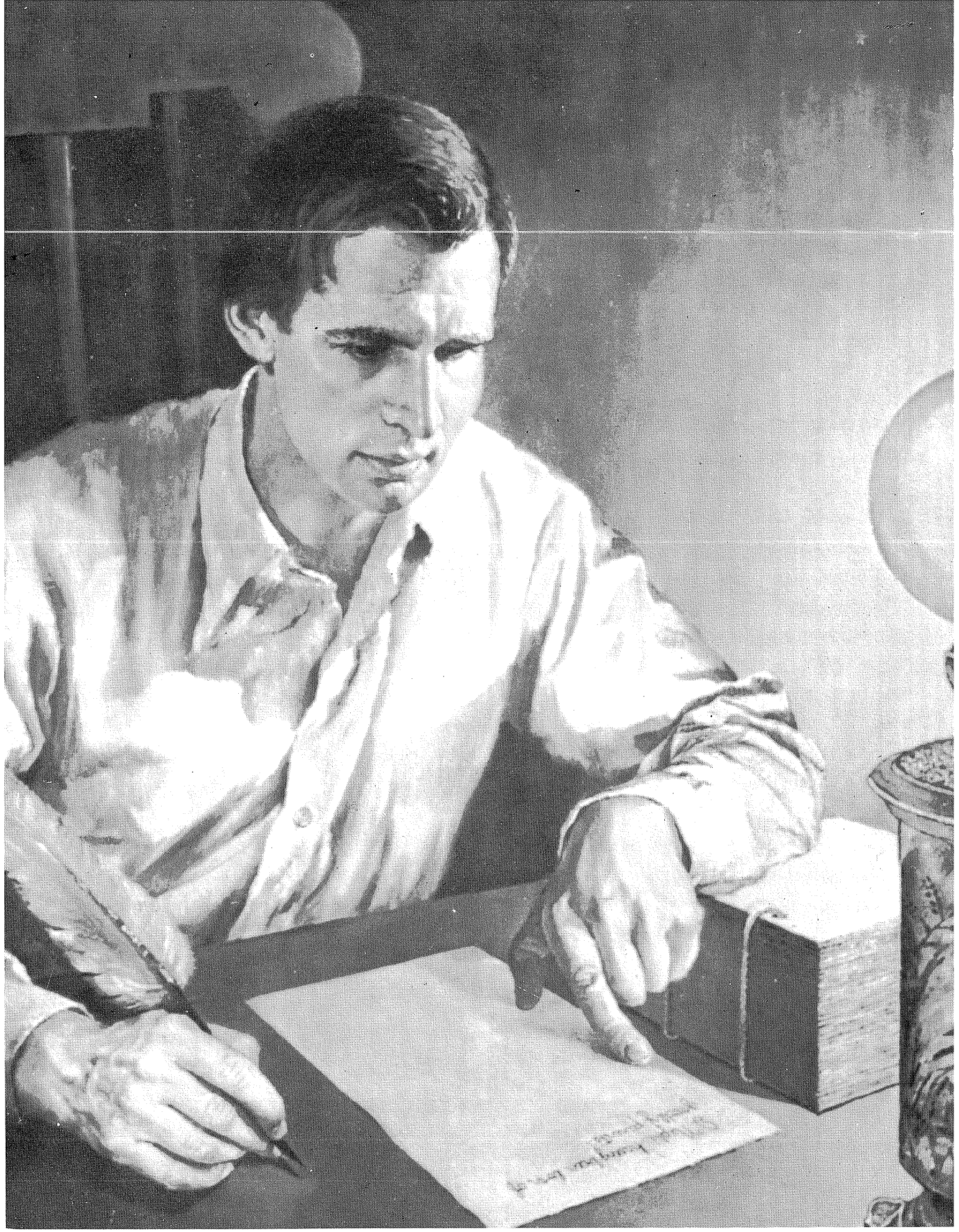
이나 신교도가 삭제한 책인 위경(그들은 그들의 성경에 있는 다른 책과 똑같이 성스러운 책으로 받아들임)을 추가하고 있다.

신교가 구교에서 이탈하여 성경이 모든 신자의 정통적인 책이라고 주장하였을 때 성경이 어떤 책을 실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신교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사회의 소리가 경전 내용을 결정하는 소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결정지었다. 따라서 신교도는 위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위경에 대한 말일성도의 입장은 교리와 성약 91편에 나와 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전에 어떤 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결정했을까? 현 시점에서 볼 때 그들이 취한 조치는 명확하지 않다. 어떤 책이 권위가 있고 적절하며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책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물몬의 경우처럼 그 책임이 한 사람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교리와 성약처럼 여러 사람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

구약성서의 많은 실마리와 말일의 계시에서 얻은 사실로 우리는 그것의 기원, 성장, 발전, 여러 책이 합본되어 한 권으로 나온 최종의 모습에 관하여 다소간 알 수는 있으나 아직도 모르는 사실이 많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만들어지고 전해지는 데 주님의 인도의 손길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훌륭한 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경전과 어떤 면에서는 병행한다고 하겠으나 “주님이 다른 곳에서 옛날 백성에게 베푸신 일에 관하여 알게” (니일 19:22) 함으로써 독특한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㉔

메서비 형제는 브리검 영 대학 고대 경전 담당 조교수이며 프로보 플레전트 뷰 제3와드 감독단 제2보좌이다.



말일의 계시는 구약성서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데, 이는 계시가 아직까지도 그 본래의 맛과 의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말일의 계시를 담은 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대가 계시를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약성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는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된다.

1. 물론경과 아브라함서와 같이 고대의 기록을 회복하고 번역한 것. 이 두 가지 책은 성경과 마찬가지로 같은 고대의 상황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예언자에 의해서 번역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히 번역되었다고 확신했다.

2. 구약시대의 예언자의 저술을 회복하였으나 요셉 스미스가 실제로 고대의 기록을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않았음. 모세서를 포함한 이러한 기록은 모세의 시현과 기록 및 에녹의 예언을 담고 있으며, 물론경이나 아브라함서가 번역된데 반해 이것은 고대 기록의 번역이 아니라 예언자가 요셉에게 계시로 주어졌음.

3. 구약시대의 사건이나 인물에 관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계시. 성경상의 기록을 번역한 것이 아닌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계시는 성경상의 인물이나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약성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계시로 교리와 성약 84, 107, 132편이 있다.

그러므로 말일성도는 구약성서와 관련이 있는 많은 기록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경전을 연구하는 데 이러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연구라고 볼 수 없겠다.

예언자 요셉에게 주어진 계시는 성경상의 이야기가 완전하지는 못하나 근본적으로는 옳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다시 말해서 말일의 계시는 창세라는 것이 성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시도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실히 해 준다. 그것은 또한 인간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즉 단순한 그의 창조물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혈통과 계보를 가진 자녀라는 성경상의 주장을 증명해 준다. 말일의

요셉스미스의
영감에 찬 글을 통하여 우리는
구약시대의 기록과 인물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대의 계시 : 구약성서의 창

로버트 제이 매튜스

1974년 7월호 

계시는 또한 실제로 아담의 타락이 있었으나 그것은 인간의 진보를 위한 필요한 조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타락을 예견하시고 인류를 위해 구세주를 보내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모세서 4:1-4; 아브라함서 3:22-28; 니이 2:22-26 참조)

말일의 계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늘의 사자에 의해서 아담에게도 가르쳐졌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써 오늘날 경전의 미비한 점을 보충해 주고 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의 계획을 알았으며 그것을 그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쳤다.

예언자에게 주어진 계시는 구약시대의 축복사나 예언자가 실제로 지상에 살았던 사람임을 증거해 준다. 또한 고대의 예언자나 축복사는 하나님과 천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들로 성신권과 성신의 인도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왕국이 아담의 시대에 세워졌고, 신권의 권능은 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안수에 의해서 태초부터 전해 내려 왔다는 사실을 계시로써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으로, 말일의 계시에 의하여 비로소 알려진 것이다. 즉 그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흥정역 성경에서는 가르쳐지지 않은 것들이다. 이외의 다른 사실이 모두 새로운 것은 아니니 이는 구약성서의 기록에서 조금씩은 비쳤거나 나타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일의 계시에 주어진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일례를 들어 구약성서를 읽은 사람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만을 읽은 독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후일에 베들레헴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분과 같은 인물임을 알지 못하는 수가 많다.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분이 영체로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다. 말일의 계시도 이점

을 분명히 해 준다. 그것은 또한 고대의 예언자가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 지상에 오시리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증거해 준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자신이었다고 말했다. (니삼 15: 4-5 참조) 그는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यो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음을 당한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라”(니삼 11: 14)

불이 붙는 가시나무 덩굴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출 3: 14)라고 하셨다. 교리와 성약에 실려 있는 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존자”(교성 38: 1; 39: 1)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일의 계시로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성약을 맺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또는 자존자, 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진 사람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말일의 계시를 읽거나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사실과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 추가할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아담. 말일의 계시 중 값진 진주에 나오는 모세서는 침수로써의 침례, 성신을 받는 일, 짐승의 제물을 드리던 일, 아담이 많은 자녀를 두었고, 아담과 그의 후손이 주님께서 지정하신 아담-온다이-아만 골짜기에 집합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해 준다.

2. 가인. 구약성서에 나타난 가인에 관한 기록 이외에 우리는 말일의 계시를 통해 왜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께 열납되지 않았는가(모세서 5: 18)하는 사실과 가인이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사탄과 약속을 맺고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비밀 결사를 조직한 사실(모세서 5: 26-33; 6: 26-27)과 가인의 아내가 누구였는지(모세서 5: 28)를 알 수 있다.

3. 에녹. 구약성서에는 창세기의 여섯 절(5: 18-24) 이외에는 에녹에 관한 언급이 없다. 우리는 모세서에서 그의 성역, 위대한 예언, 그의 성, 그의 승천, 그가 성역을 베풀라고 외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상당한 지식 등에 관해서 알 수 있다. (모세서 6: 21-7, 69 참조)

4. 므드셀라. 성경은 이 사람에 관해서도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는 말일의 계시를 통해 에녹의 성이 하늘로 들리워 올라갈 때도 그는 지상에 남을 특권을 받았다는 점(모세서 8: 2-3)과 그가 아담에 의해서 성신권에 성임된 사실과 그 다음 그가 노아를 신권에 성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성 107: 50-52) 요셉 스미스는 므드셀라가 천문학자였다는 사실이 이집트 파피루스를 통해 알려졌다고 말한 바

있다. (인간, 그의 기원과 운명, 조셉 필딩 스미스, [테저렛 출판사 1965년] 269, 470, 488 페이지 참조)

5. 노아. 대홍수 이전에 노아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서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수로써의 침례, 성신의 은사를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말일의 계시는 또한 그가 단순한 일기 예보가라기 보다는 위대한 예언자였음을 말해 주는데, 이는 성경을 읽어서도 추측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노아가 가브리엘이며, 다니엘, 스가랴, 마리아를 방문한 천사와 동일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눅 1: 5-17, 26-28; 단 8: 15 참조)

6. 벨기세덱. 벨기세덱은 성경에는 신비로운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창 14: 18-20), 시편과 (110: 4), 히브리서(5-7)에서 간단히 언급된다. 이 성구에서 대제사장인 그에게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쳤다는 것 외에는 별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다. 말일의 계시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가 온 백성이 회개하도록 이끈 의로운 복음 전파자이며 (앨 13: 18-19 참조), 아브라함을 신권에 성임했고(교성 84: 14), 위대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고대의 교회에서 그의 이름을 따서 신권의 이름을 붙였다(교성 107: 1-4)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7. 아브라함.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으나 아브라함을 위시한 말일의 계시는 더 많은 사실을 전해 주고 있다. 말일의 경전에 첨가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그가 천체의 운행에 관한 지식이 많았고, 전세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으며, 창세에 관한 보충적인 설명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자로 예임되었다는 사실과 아브라함의 성약에 관한 보다 큰 지식등을 들 수 있다.

8. 야곱. 말일의 계시 중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교리와 성약 132편 37절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 대한 신앙과 순종심이 강하였으므로 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9. 요셉. 물몬경에 의해 우리는 요셉의 축복과 그가 하나님과 맺은 성약이 일부 성취된 것을 알 수 있다. (나이 3: 4, 4: 2 참조) 오늘날 우리의 성경에 남아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의 예언 중에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자녀를 이끌어 온 모세와 아론에 관한 것과 말일에 오게 될 요셉이라는 이름의 선지자에 관한 것이 있다. (나이 3장, 창 50: 24-38, 영감역 참조)

10. 모세. 값진 진주 모세서에 있는 말일의 계시에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내용과 그가 본 시편과 그의 기록에 관해 상세한 설명이 첨가되어 있다.

11. 여호수아. 말일의 계시로부터 우리는 왜 주님께

구약의 인물에 관해 알게된 요셉 스미스

서 여호수아를 시켜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많은 주민을 희생시켜 가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니일 17:31-35 참조) 물몬경에 나오는 다음의 원리에 근거를 두는데, 즉 인간은 우연히 하나님에게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에 의해 선택되며, 주님은 사악한 국가나 백성을 받아 들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일의 계시는 구약성서의 난해하고 오해되기 쉬운 역사적인 사건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12. 예언자 엘리야.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예언자 엘리야가 신권의 인봉의 열쇠(교성 110편)를 지녔고, 그가 하늘에서 불을 부르고 하늘을 닫아 이스라엘 땅에 삼년 반이나 비를 내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열상 17-18 참조) 1836년 미국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신전에 엘리야가 방문함으로써 우리는 말라기 4장 4-9절의 예언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 (교성 2, 110편 참조)

13. 이사야. 말일성도의 계시 중 특히 물몬경은 그의 예언에 관한 해석과 설명을 담고 있어서 이사야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열쇠를 주고 있다. 물몬경은 수시로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것은 특히 니파이, 야콥, 아빈아다이, 예수의 가르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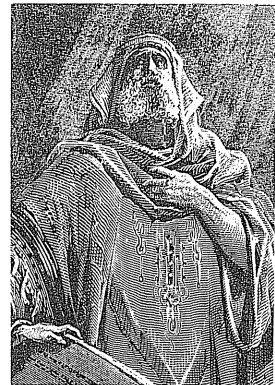
그 밖에도 구약성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일의 계시는 많이 있다. 경전의 각 책은 다른 책이 참됨을 증거해 주며, 말일의 기록은 성경에서 읽은 간결하고 진귀한 부분을 보완해 준다. 결국 모든 경전은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진리를 확립하고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함께 자랄” 것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구세주를 알며 주 앞에 나아와 구원받게 되는 길을 알려 주시는 교리의 중요한 점들”을 알게 해 줄 것이다. (니일 13:40, 니이 3:12, 29:8; 니일 15:14 참조) 〰

매튜스 박사는 브리감 영 대학 고대 경전 담당 조교수이며 교회 성인 협의 위원회의 일원이다.

복음의 회복이란 참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복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많은 인물들이 요셉 스미스를 방문했다. 존 테일러 대관장의 말을 빌린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아담, 셋, 에녹과 예수 및 하나님 아버지와 아시아 대륙과 미대륙에 살았던 사도”들을 포함하여 구약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그들이다. (설교집 21권 94페이지) 교리와 성약은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와 “아담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천사들”의 방문을 기록하고 있다. (교성 128:21) 〰



아담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질의 응답

복천년 동안 사탄이 묶여 있는 중에도 지상에 악인은 존재합니까?



로이 더블류 독시

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운 사회에 속하기를 원해 왔으며, 주님께서도 그들이 결국은 그러한 사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사악함과 가증함으로 그것은 그들의 시대에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교성 45: 11-14) 말일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지구는 정의, 평화, 번영이 차고 넘치는 낙원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경전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고 있음

니다. (신앙개조 10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복음의 빛을 거부한 타락한 나라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유대국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여러 군대도 멸망될 것입니다. (살후 1: 7-9; 교성 29: 9, 63: 34, 54, 101: 23-24) 예수께서 “세상 끝”(마 24: 3)이라고 하신 것을 지구의 종말로 풀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악인의 멸망”(요셉 스미스 1서: 4, 31)을 뜻한다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영감을 받아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는 복천년 동안에도 “지상에는 악인이 있게 될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68-269 페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악인이란 충분한 복음을 받아 들이지 않아 그에게 오지 않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 (교성 29: 16, 76: 50-53, 84: 49-53)

따라서 도덕적으로 사악한 자들은 주님의 재림 때 멸망되지만 충분한 복음을 받아 들이지 않는 의

로운 자는 복천년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나, 복천년에 관해 예언된 모든 조건이 갑자기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어온 전통은 계속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인간은 모두 자유의지를 가졌으므로 사탄에 묶여도 그들은 스스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구세주의 재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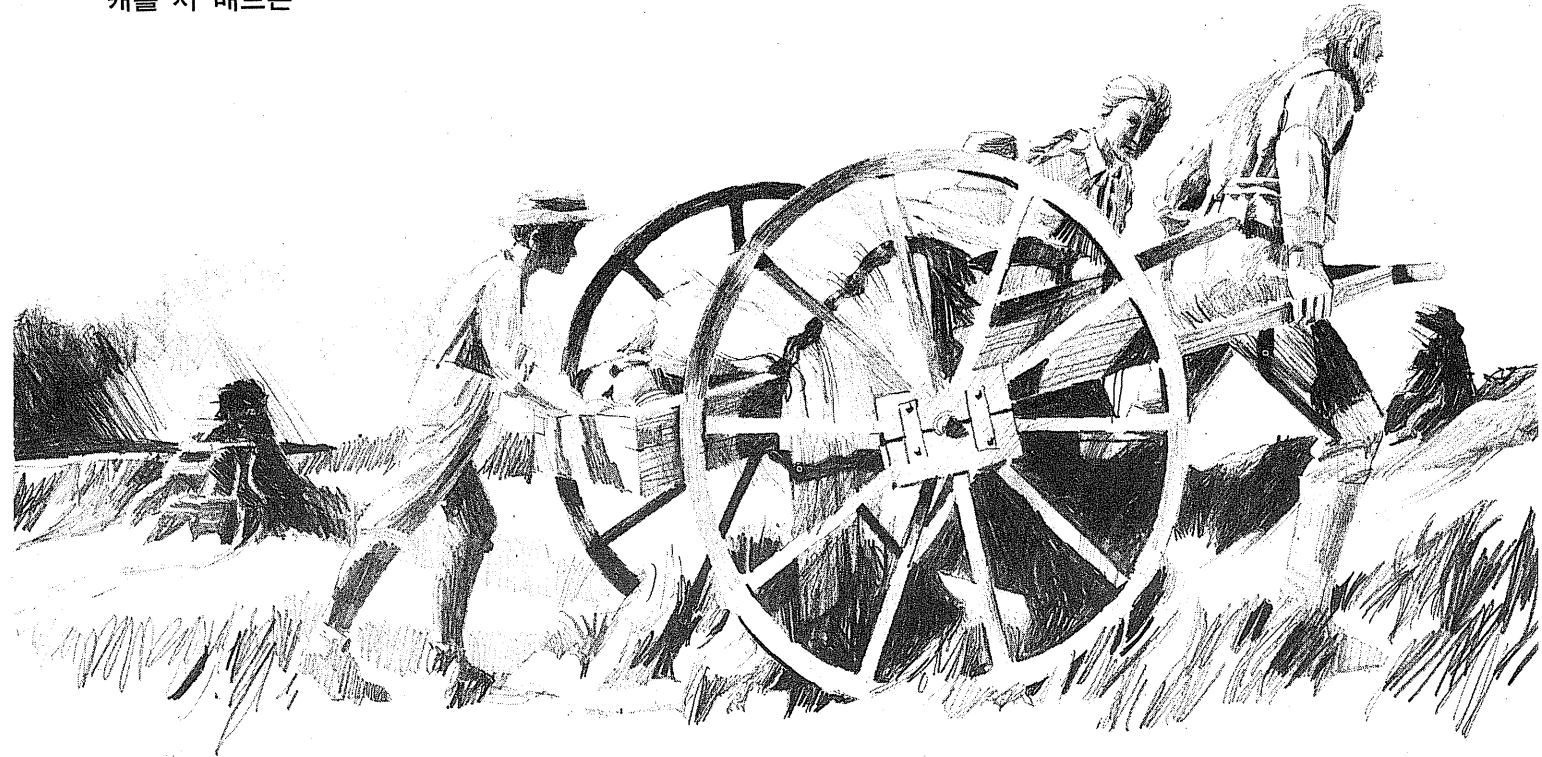
“부패와 악이 사라질 것이며, 그러한 생활에 젖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쫓겨 나갈 것이며,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니파이인에게 임했던 대멸망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리니, 이방인을 포함해서 의롭고 선한 백성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복천년에 관해서” 임프르브먼트 이라, 32권 [1920] 113페이지)

로이 더블류 독시: 브리감 영대학 교회사 및 교리 담당 교수

41페이지에 계속

모든것 잘되리

마가렛 시 리차즈
캐롤 시 매드슨



성도들

1974년 7월호

오늘 아침 나는 “모든 것 잘되리”라는 새 노래를 지었다.

이러한 간단한 서두로써 1846년 4월 15일 윌리엄 클레이튼은 세계 도처에 있는 교회 회원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지은 사실을 그의 일지에 기록했다. 그 노래가 바로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인 것이다.

윌리엄 클레이튼은 성도들이 나부에서 쫓겨난 후 윈터쿼터스로 향해 떠난 최초의 개척단의 일원이었다. 그의 일지는 그의 대대가 나부를 떠난 지 48일이 되는 날 나

성도의 벗 1974년 7월호

부에서 480킬로 떨어진 지점에서 기록된 것이었다. 그의 아내는 뒤에 남았었는데, 클레이튼 형제는 이 일지를 쓰기 전날 밤, 아내로부터 득남의 소식을 전해 들었었다. 이 기쁜 소식이 결국은 “모든 것 잘 되리”라는 영감받은 가사를 짓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가사는 제이 티 화이트가 편곡해서 “오리지널 세이크릿 하프”라는 노래 책에 실려있는 오래된 멜로디에 맞추어 가사가 쓰여졌다.

그의 개척단원들은 이 노래를

자주 불렀다. 누군가가 “모든 것 잘 되리”를 부르기 시작하면 캠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따라 불렀다. 그 노래는 곧 유명해져서 광야를 횡단하는 다른 개척단들도 모두 따라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은 이 훌륭한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그당시 지치고 낙담한 개척자들에게 왜 그토록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신앙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노래이며, 윌리엄 클레이튼은 이 위대한 찬송가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

사랑스러운 친구들

하우워드 포스트 그림

행복

1974년 7월호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 : 13)

한 어린 소녀가 심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혈액형의 피로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빠는 그녀와 같은 혈액형이었습니다. 의사는 오빠에게 피를 뽑아 동생의 생명을 구해 줄 수 있겠는지 물었습니다. 어린 소년인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수혈이 끝난 후 그 소년은 의사에게 고개를 돌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언제 죽게 되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의사는 그 소년이 피를 동생에게 주게 되면 자기는 죽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기꺼이 동생을 위해 죽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 : 12)

예수님은 사랑의 본모기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그가 가르치신 바를 온전히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부활절 전 목요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어느 집 다락방에서 그의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최후의 만찬을 함께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식탁을 떠나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는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한 제자가 왜 발을 씻겨 주시는지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주인이 종보다 위대하지 않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빵을 떼고 포도주를 부으셨습니다. 그 분은 이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곧 그들은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제자들은 슬펐습니다. 예수님은 낮으막하고 사랑스런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 : 33-35)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마 19 : 21)는 예수님의 권고를 받아 들였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 : 39)

“히버야 생일을 축하한다” 하시며 어머니는 히버가 처음 보는

성도의 벗 1974년 7월호

멋진 코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옷을 받아 가슴에 꼭 품어 안았습니다. 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옷을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것을 안 히버는 빨리 그 옷을 입어 보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히버는 심부름을 다녀오다가 추위에 얇은 스웨터 하나만 입고 벌벌 떠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 소년에게로 다가

가자 그 소년은 히버의 코트를 부러운듯 바라 보았습니다. 그 순간 히버는 걸음을 멈추고 코트를 벗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히버가 새 코트를 두고 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고는 새 코트를 왜 입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니!”하며 히버 제이 그랜트는 설명했습니다. “나보다 그 옷이 더 필요한 아이가 있어서 주었어요.”





“바위를 받았어. 무어가 부러진 모양이로군”하며 할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자 딴 사람들은 계속 진군하시오.”

“가라고요?” 하며 누가 되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꼬마를 두고.”

그 사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누가 우리 팀을 데려만 가 주시오”하시며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팀은 깜짝 놀라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끝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할아버지 없이는 가지 않을래요. 아빠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론 늘 함께 있었잖아요. 할아버지가 여기 계신다면 나도 여기 있을래요. 언제라도 있을래요.”

할아버지는 대견한 듯이 웃으시며 다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팀은 이제 열 세 살이니 내게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마차를 고쳐서 곧 쫓아 가겠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반대하였으나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위를 살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차는 다른 것보다 좋아 곧 따라갈 수 있을 거야.”

팀과 할아버지는 삐걱 삐걱 소리를 내면서 언덕 위를 지나 사라져 가는 대대를 물끄러미 바라 보았습니다. 팀의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어깨에 손을 올려 놓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서있었습니다. “자 팀아, 일을 해야지.”

팀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괜찮아요? 곧 따라 갈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자 쳐다만 보지 말고 일하면 좋은 일이 생길거야.” 하시며 할아버지가 마차쪽으로 가지자 잠시 후 팀도 쫓아갔습니다.

“넌 소들을 좀 봐라”고 할아버지가 지시하셨습니다. “풀밭으로 데려 가서 풀을 먹이렴. 잘 살펴야 해.”

팀은 외로이 남은 마차 주위의 풀밭을 찾아 소를

외로이

1974년 7월호

외로운 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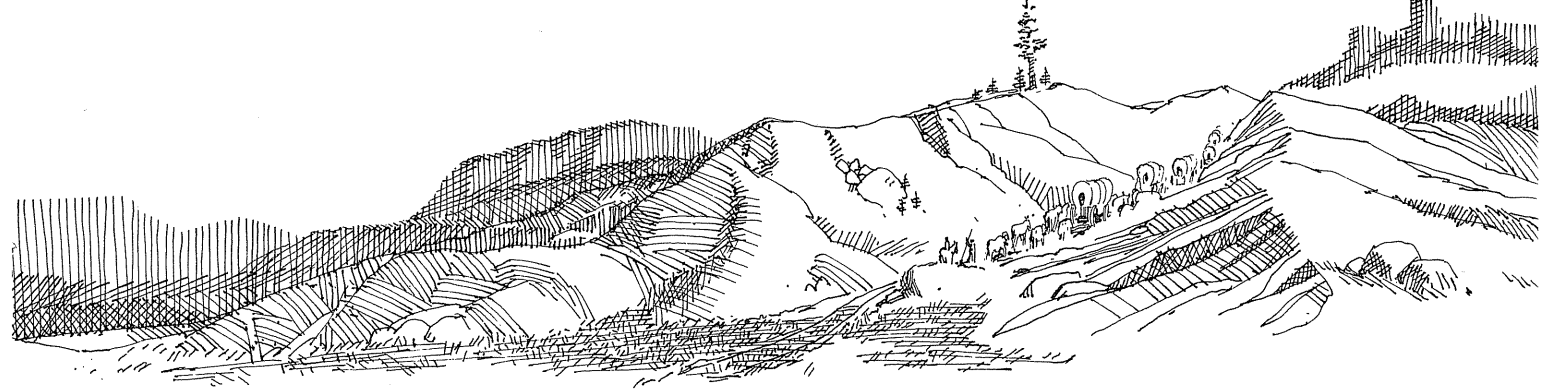
루시 파 클 찰스 킬터 그림

팀 버튼은 먼지 쌓인 마차를 따라 조용히 걸어 갔습니다. 대대가 떠난 지 두 시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팀은 다른 사람도 지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왔고 열의에 찻던 첫 일 주일의 웃음과 기분은 어느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서부로 가는 길밖엔 아무 도리가 없습니다.

갑자기 마차가 멈추고 할아버지가 놀란 듯이 중얼거리자 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마차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마차 주위에 모여 들자 모자를 벗어 들고 못이 박힌 뻗뻗한 손으로 허영계 쉼 머리를 만져 올리셨습니다.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아침 나절이 지나고 점심 때가 넘어서야 할아버지는, “자 빨리 서둘러 점심을 먹자.” 하시면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빨리 식사를 끝내시고 다시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제가 도울 게 없나요?” 하며 팀이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돕고 있는 거란다” 하시면서 할아버지는 팀을 안심시켰습니다.

오후 늦게야 할아버지는 다시 잠시 쉬셨는데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 담겼습니다. “팀아 네가 강가로 소를 몰고 가서 물을 먹이고 돌아 올 때 까지는 내가 다 고쳐 놓을게”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잘 쉬었고 배불리 먹었으니 장거리 여행도 거뜰히 해내겠지. 초저녁엔 달도 뜨지. 아침이 밝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팀은 재빨리 움직여 풀밭의 소를 몰고 강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버드나무 뒤에 꾸부리고 앉은 인디안을 보고 팀은 놀랐습니다.

공포에 질린 팀은 아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꿀꺽 침만 삼켰습니다. 그는 너무나 놀라서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지만 인디안도 역시 아주 놀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의 가죽옷은 여러군데 찢겨져 있었으며, 왼쪽 어깨에는 허술하게 붕대가 묶여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런닝 엘크야” 하면서 인디안 소년은 부끄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롱 바우의 아들이지”

“너 영어를 아는구나” 하며 팀이 놀라 물었습니다.

“응 조금.” 런닝 엘크가 대답하였습니다.

“어디서 왔지?” 팀이 물었습니다. “너 혼자니?” 인디안 소년이 꾸부정한 모습으로 다가 오자 팀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혼자야.” 런닝 엘크가 대답하였습니다.

팀은 그 소년이 삼일 전에 어깨에 심한 상처를 입

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젠 많이 나았으나 그래도 아직은 몹시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그 소년은 팀과 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버드나무 속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외치셨습니다. “팀아, 어디서 무얼하니?”

“할아버지, 가요.” 팀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인디안 소년을 바라 보았습니다. “함께 갈래?”

팀은 재빨리 런닝 엘크와 함께 할아버지에게 와서 그가 한말을 할아버지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이셨습니다. 팀의 말이 끝나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얼 먹어본 지 오래겠구나?”

“사흘 전에 딸기를 조금 먹었어요.” 런닝 엘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불을 피울 시간이 없다. 아침 식사로 먹을 옥수수 빵과 물소 고기가 좀 있다”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인디안 소년은 음식을 보자 다시 한번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할아버지가 “자 이전 네꺼란다. 먹으렴”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이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할아버지와 팀은 마차에 다시 짐을 실었습니다. “너를 데리고 가는 수밖엔 별 도리가 없겠구나”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런닝 엘크의 상처를 붕대로 감아 주고서 마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대가 그들을 남겨 놓고 떠난 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깃든 황혼 속으로 할아버지는 성급히 마차를 몰았습니다. 캄캄한 밤이 왔으나 소를 쉬게 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달이 언덕 위로 떠오르면서 그들의 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차의 중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걸었습니다. 런닝 엘크도 마차에서 내려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마침내 마차가 정지했습니다. “자 오늘 밤은 여기서 쉬자. 이렇게 걸다간 모두 죽겠구나” 하시며 할아버지가 다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팀은 누가 담요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나 깊은 잠에 빠져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자 팀아 일어나. 벌써 밝았어. 떠나야지” 하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팀은 먼저 떠난 대대를 빨리 쫓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할아버지가 인디안 소년이 제의한 지름길을 택하기로 동의한 것이 옳은 일인지 망설여졌습니다.

“런닝 엘크 말로는 이 길로 가면 몇마일이나 단축된다. 어둡기 전에 대대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시며 할아버지가 팀에게 설명하셨습니다.

한 시간쯤 갔을 때 할아버지는 잠시 마차를 세우셨습니다. 팀은 전혀 불안한 듯 주위를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하며 팀은 놀라서 외쳤습니다.

나무와 바위 뒷쪽에서 인디안들이 나타났습니다. 곧 마차가 포위되었습니다.

팀은 두려움에 질려 버렸습니다. 그 앞에서 할아버지는 조용히 서 계시기만 했습니다. 런닝 엘크가 마차에서 뛰어 내리면서 그들을 향해 이상한 말을 외쳤을 때 팀은 정말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주위에 둘러섰던 인디안들은 잠시 동안 잠자코 서 있더니 그중 키가 큰 용사가 앞으로 걸어 왔습니다.

그 순간 런닝 엘크는 방향을 돌려 마차로 달려 왔습니다. “이 사람은 스위트 이글, 나의 삼촌이에요. 벌써부터 우리를 지켜 보았어요. 이 마차가 셋길로 가는 게 이상해서 온 거래요. 백인은 이 지름길을 몰라요” 하며 런닝 엘크가 말했습니다.

인디안들은 무어라고 크게 지껄이고 웃으면서 팀과

할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나는 상처를 입고 배가 고팠던 것과 할아버지가 도와 준 걸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 인디안은 같이 여행하고 싶어요. 혼자 떠나면 위험해서 바래다 드릴 거예요” 하며 런닝 엘크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했으며, 인디안은 터벅터벅 걷는 황소를 보고 많은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차를 “거대한 굴러 가는 집”이라고 불렀으며, 한 사람씩 마차 속과 바퀴를 살펴 보았습니다.

오후 늦게야 마차는 지름길에서 나와 큰 길에 들어섰습니다. 먼저 떠난 대대가 원을 그려서 마차를 세워 놓은 곳에 닿았을 때는 황혼이 진 후였습니다.

팀을 본 대대가 수많은 인디안을 보고 놀라는 모습에 웃음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디안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는 접근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돌아 갑니다” 런닝 엘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어요” 하고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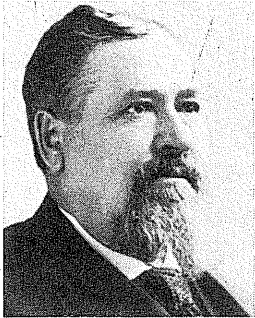
인디안 소년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런닝 엘크도 정말 당신들이 고마웠어요” 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슬픈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미리 전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왔다고 전해 주세요.”

팀은 할아버지와 다른 마차 있는 곳으로 가기 전에 런닝 엘크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려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다시 만나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못하다 해도 이 짧은 순간의 우정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㉞

사도들의 생애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

매리너 더블류 메릴 장로

약력



메릴 장로는 1823년 9월 25일 캐나다 뉴브른스위크, 섹크빌에서 네이탄 메릴과 사라 안 레이놀즈의 아들로 태어났다.

1853년에 메릴 장로는 고향을 떠나 솔트레이크시티로 갔다.

1861년 캐쉬 벨리 리치몬드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을 받아 17년간 봉직했다. 1879년 캐쉬 스테이크 부장인 윌리엄 비 프레스톤의 제1 보좌로 임명되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사업에도 손을 대어 크게 번창하였다. 1884년 그는 새로 세워진 로간 신전의 신전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1906년 2월 6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직분을 맡았다. 1886년 10월 6일 그는 사도로 성임되어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이 직분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냈다. 당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메릴 장로는 1899년에 캐쉬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을 받아 1901년 해임될 때까지 일 년 반 동안 봉사했으나, 그는 동시에 십이사도 직과 신전장, 스테이크 부장의 직을 수행했으며 그러면서도 시간을 내어 그의 사업을 경영하였다.

매리너 우드 메릴 장로의 생애는 복음의 기본 진리를 확고하게 고수한 생애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겸약, 온전함, 동료에 대한 공정한 태도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좋은 기회를 안겨 주었다. 대인관계나 사업상의 일에서 보인 그의 정직한 태도는 교회의 일에 임하는 그의 태도와 같았다. 그는 교회의 부름을 첫째로 생각하고 다른 일을 처리하였으나, 이 모든 일을 성실한 정신으로 명예를 염두에 두고 행하였다.

“놀라운 경험”

1855년부터 56년까지 나는 솔트레이크시티 북부 산악지대인 노스 밀 크리크 캐년에서 지난 겨울에 했던 일을 다시 했다. 나는 그해 겨울 계곡에서 일하는 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856년 1월은 계속 날씨가 추웠고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30도까지 내려 갔다. 한번은 날씨가 너무 추워 아무도 일하러 가려 하지 않아 나 혼자 계곡으로 들어 갔다. 나는 그때 보통 통나무 다섯 개를 끌고 와서는 눈썰매에다 싣기 시작했다.

통나무 다섯 개를 나란히 썰매에 싣었다. 그곳은 눈이 쌓여 미끄러웠으므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먼저 하나를 썰매에 싣고는 또 다른 하나를 가지러 가려고 뒤로 돌아 섰다. 그 순간 썰매 위에 놓은 통나무가 총알처럼 날아와 나의 무릎을 내리쳐 나는 네 개의 통나무가 있는 곳으로 밀려 넘어졌다.

나는 미끄러지면서 나무를 썰매에 올려 놓을 때 사용하던 쇠꼬챙이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네 개의 통나무 위에 넘어진 나는 지름 25센티 길이 6,7미터 되는 무거운 통나무에 다리를 내려 깔려 있었기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곳에는 나 혼자 밖에 없었으므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으며 몸을 빼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기구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나는 유타 산골에서 혼자 일어 죽게 되는가 보다하고 생각했다.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심란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갔다. 통나무 위에 떨어지면서 가슴과 복부를 다쳐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다. 어떻게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주님께 간구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다. 몇 번이고 주님을 부른 다음 나를 깔고 있는 통나무에서 안간힘을 써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러나 나는 힘이 빠져 정신을 잃을 때까지 계속 노력했다.

내가 의식을 되찾고 눈을 떠 보니 계곡으로부터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는 통나무 위에 앉아

* 메은 알 하트슨, 편찬가, 사도들의 생애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 솔트레이크시티: 메저벳 출판사, 1973년, 사용 허가.



있었으며 소가 천천히 썰매를 끌고 있었다.

내 옆에는 오바코트가 있었다. 추위를 느끼면서 나는 썰매를 세우고 놀라서 주위를 살폈다. 그때에야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속에서 통나무에 깔려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기억할 수가 없었으나 대강 두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평일보다 두 시간 늦게 집에도 착했기 때문이었다. 짐을 살펴보니 썰매 위에 통나무가 다섯 개나 놓여 있었다. 세개는 아래 썰매에, 두개는 위의 썰매에 가지런히 묶여 있었고, 쇠꼬챙이는 꼭대기 나무에 찍혀 있었고, 채찍은 내 옆에 있었으며, 양털 방석도 나무 위에 있었고 그 위에 내가 앉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짐을 부리고 오바를 입으려 했지만 다리와 가슴이 너무도 아파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앉은 채로 오바코트를 다리에 올려 놓고 겨우 감싸고는 계곡을 계속 내려 갔다. 소가 말을 잘 들었고 길도 순탄해서 무사하게 집에 도착하였다. 집에 도착해 보니 아내는 내가 전보다 늦으므로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걱정하고 있었다. 아내는 나를 부축해서 집안으로 데려 가 난로가에 앉히고 편안하게 한 후 소마차를 보러 나갔다. 나는 며칠 동안 집안에서 갇혀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내가 산속에서 본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으므로 나는 누가 나를 통나무에서 끌어 냈고, 썰매에 짐을 실었으며, 소를 썰매에 연결하고 나를 썰매 위에 올려 놓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러한 위험에서 나를 구해 준 생명의 은인을 주님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아버지 너무 슬퍼마세요”

메릴 장로는 다방면에 취미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경영하던 농장이나 가게나 방아간이나 축산업이나 낙농업 등은 주의깊은 관리와 탁월한 경영 능력을 요하는 것이었다. 후자의 사업은 주로 그의 아들들이 맡아 운영했다 그가 모든 일을 믿고 맡긴 사람은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장남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업이 한창일 때 이 큰 아들이 죽고 말았다. 메릴 장로는 이 아들의 죽음을 오랫동안 잊지 못했다. 사실 그는 아들의 죽음으로 지나칠 정도로 슬퍼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도 메릴은 로간 신전을 관리하였다. 그는 자주 말이나 마차를 타고 로간에서 가족이 살고 있던 리

치몬으로 여행했다.

아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도 그가 집으로 돌아 오고 있을 때였는데, 그는 마차를 타고 오면서 죽은 아들 생각에 빠져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말이 멈추자 그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아들이 그 옆의 길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아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너무 슬퍼 마세요. 아버지는 지나칠 정도로 내 가족과 그들의 복리를 걱정하고 계시요. 저는 해

야 할 일이 많은데 아버지께서 너무 슬퍼하시니 걱정입니다. 나는 내 가족을 효과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좀 위안을 받으셔야 해요. 제가 이 곳에서 할 일이 많아서 이렇게 부름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지 않아요. 주님께서서는 모든 일을 잘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런 말을 한 후 그의 아들은 그를 떠났다. 이런 일이 있던 후 메릴 장로는 그의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고 큰 위로를 받았다.

후랭크린 드웨이 리차즈 장로

약력



리차즈 장로는 1821년 4월 2일 마사츄세츠주 리치몬드에서 피네하 리차즈와 웰시 듀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아홉 남매 중 네째였다.

그는 사촌인 브리검과 조셉 영에게서 복음을 배웠고

1838년 17세에 침례를 받았다. 1840년에 그는 칠십인으로 성임되었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1848년 성도들로 구성된 대대를 이끌고 솔트레이크 계곡에 왔다. 1849년 28세 되던 해에 그는 히버 시 킵블에 의해 사도로 성임되었다. 그는 1850년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하였으며, 1854년 유럽 선교부를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1866년에 그는 다시 영국 선교부를 관리했다.

리차즈 장로는 웨버군에서 유언 심판관으로 14년간을 봉직했다. 1889년 교회 역사 편찬 위원이 되었다.

리차즈 장로는 1899년 9월 13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되었다.

그는 1899년 12월 9일 78세를 일기로 유타주 욱든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와 매저 형제는 서로 통할 수 있었습니다”

1855년 10월 14일 밤 세 명의 장로(프랭크린 디 리차즈, 윌리엄 버찌, 윌리엄 에이치 킵블)와 매저 박사, 에드워드 쉘펠트 및 그의 여러 명이 역사적인 엘베강을 찾아 갔으며, 여기에서 매저 박사는 사도인 리차즈 장로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 말일의 경

성도의 빛 1974년 7월호

륜의 시대에 색소니(독일 남부) 지방에서 있었던 최초의 침례였다. 침례식이 끝난 다음 이들은 매저 박사 댁으로 돌아 갔다. 독일어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장로였던 윌리엄 버찌가 통역하고 사도인 리차즈 장로와 매저 박사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었다. 대화를 주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리차즈 장로는 자기와 매저 형제는 서로 통할 수 있으니 통역할 필요가 없다고 버찌 장로에게 말했다. 쉘펠트 형제는 그때가 한밤중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토록 완전하게 서로 대화를 이어 가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그때의 느낌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가 그것이 하나님의 시현을 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몇 년 후 매저 박사는 자기가 그때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자신의 믿음을 하늘의 시현을 통해 확인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며 그는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간증하였다.

“그는 폭풍을 꾸짖었다”

영국 선교부에서 임기를 마치고, 대서양을 건너 귀환할 때, 날씨가 고르지 못하여 폭풍이 닥쳐 파도가 높이 일었으며, 선원들은 겁에 질려 감히 손을 쓰지도 못하고 떨고만 있었다.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도 기절할 판국에 그는 자기가 구세주나 그 당시의 사도들처럼 (눅 21 : 26 참조) 노한 자연을 꾸짖고 잠잠하라고 명할 수 있는 권능인 성신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는 남이 보이지 않는 한쪽 구석에 가서 팔을 하늘 높이 치켜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폭풍우와 성난 파도를 꾸짖고 조용하라고 명했다. 폭풍우는 곧 사라졌다. 실종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배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圖

경계하라

해롤드 비 리 대관장

1974년 7월호 **행복**

사랑하는 신권 소유자 여러분,
유럽 여러 나라에 있는 교
회의 힘이 그대로 나타내진
이 뜻깊고 훌륭한 모임에서 여러
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신
권이란 복음의 원리의 주초가 되
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암흑의 힘

나는 오늘밤 예언자 이사야가
본 시현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말쑤
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내
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
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보거든 상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
셨더니...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
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
에 있었더니...내가 이스라엘의 하
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사람이...나
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
떻게 되었느냐...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사 21:6-8,
10-12) 이 시현은 주님으로부터
궁성 아래 저 편 탑 위에 보내져
침입해 올 지도 모르는 적이 먼지
를 일으키거나 그외의 검색을 보
이며 접근하지나 않는지를 탑 위
에서 지키는 파수꾼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가 매시간마다 본 것을
보고할 때 여러분은 주님이 파수
꾼에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
고 물은 것과 이 파수꾼이 “아침



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
려거든 물으라”라고 대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이 시현은 사도 바
울이 에베소인들에게 쓴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
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
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
라”(엡 6:12, 13)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런 다음 위대한 선교사요 용
감한 진리의 수호자인 사도 바울
은 캄캄한 밤에 공격해서 밝은 낮
에는 보통 볼 수 없는 이러한 적들
의 공격으로 상처를 가장 받기 쉬
운 무사의 주요한 부분을 지적하
였습니다. 그는 무사의 네 부분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했습니다. 허

리에는 진리의 떠를 매어야 합니
다. (물론 허리란 영치뼈와 갈비
뼈 사이의 부분을 말하나, 경전에
서는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생식 기관을 나타내 준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하니, 이것 역시 경전에서는 인간
의 양심이나 행위 혹은 의로운 자
의 중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
러분께서도 또한 구세주가 “마음
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 12:34)라고 하신 말씀을 기
억하실 것입니다. 무장해야 할 다
음 부분은 다리로, “평안의 복음
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하셨으니, 이 다리 역시 인생의
진로나 인생을 여행해 가는 과정
을 상징한 말씀입니다. 끝으로 무
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나
니, 이것은 지식을 상징하는 말
입니다. (엡 6:14-17 참조)

그러므로 사탄의 힘이나 가증스
런 암흑의 아비의 공격에도 넘어
지지 않을 네 주요한 부분은 첫째
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를 가르침으로써 보호될 수 있는
순결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가슴
을 덮고 있는 가슴판과 같이 우리
의 삶이 깨끗하고 순수해지도록
보호해 주는 의로 방패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리는 평안의 복
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에
서 살도록 영생을 향한 영원한 목

표에 눈을 고정시킬 수 있게 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지혜로운 자를 인도하나니 우리 마음의 지침이 되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도 그러한 즉”(잠 23:7)이라는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생활을 지도해 줍니다. 화를 내지 않고 살인을 범하게 되는 사람은 없다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결한 생각을 갖지 않고 간음을 범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참가지로 탐내지 않고 도적질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인 복음 교육

적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갑옷만 입고 무기를 들지 않고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사도 바울이 준 위대한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증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 가져야 할 무기는 첫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방패니, 이는 그의 회복된 복음을 믿는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석으로 삼는 교회의 살아 있는 사도와 예언자를 믿는 신앙입니다. 군인은 그의 손에 영의 칼이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르침을 지침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인 신권 소유자

신권 소유자는 시온의 탑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유형 무형으로 세상을 둘러 싸고 있는 위험을 경계하며 교회를 관리하도록 성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서 신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여러분은 새로 교회에 들어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찾아 선교사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나 미망인을 도와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말대로 그러한 일을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약 1:27) 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악이 창궐하지 못하며 모든 회원이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원이나 지도자나 교사가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그런 후 남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의로운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관리 역원인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권 소유자는 시온의 탑 위에서 망보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관리하며 눈에 보이는 세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뒤덮고 있는 악을 경계하도록 임명된 자들입니다.

“나는 복음의 진실함을 압니다. 나는 내 목숨을 잃어 버릴지언정 이 복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하는 양떼 다시 말해서 지부 또는 와드, 스테이크에 대해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며, 주의깊고 끊임없이 다른 가장으로 하여금 가족을 돌보도록 가르쳐야 하

고, 여러 가지 교회의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믿음의 수호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작가는 오늘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자를 주신다. 오늘날은 강한 의지, 위대한 마음, 참된 신앙, 준비된 자세가 요구되는 때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업을 번성케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지도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선조가 이룬 업적만큼 큰 일을 이룰 수 없을지 모르나, 여러분이나 내가 먼저 간 사람에 필적할 만한 점 한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들 만큼 선량하고 성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교회에 맡겨진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혈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복

음을 전파하라”(교성 133 : 37)고 설명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스테이크나 선교부에서 개종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우리는 항상 침례자 수의

는 방법을 알려 주리라. 무엇이라도 선한 곳으로 인도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사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께

러한 계시가 실려 있습니다. (전편을 다 읽으면 완전한 뜻을 이해하게 됨)“사람을 덕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어두움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다. 빛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 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

또 다른 계시에서 주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지침을 주셨는데, 이것은 특히 교회의 관리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또 성신으로 감동되는 대로 말하여야 함도 저들에게 주는 하나의 예니라 저들이 성신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 (교성 68 : 3, 4)

태너 부대관장님은 교회가 조직되던 날 주어진 계시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교회 회원은 교회 지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권고하셨으며, “그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흠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교성 21 : 6)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도자를 따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권 소유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것처럼 무거운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토록 부르신 지도자들을 따를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



기록보다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활동적인 회원으로 봉사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들 중에 있는 비회원이나 비활동 회원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섬나라나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 가치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리를 막자

신권을 소유하신 여러분께서는 거짓 교리를 막는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경륜의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께서서는 거짓 교리를 진리와 구분할 수 있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물몬경 예언자의 시대에 그 그러했습니다. 모로나이는 진리와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로나이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분별하

속한 것인 줄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그러나 무엇이라도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거든, 너희는 분명히 온전한 지식으로 이러한 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을 알지니 악마는 이같이 행하여 단 하나라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마의 천사들도 그러하면 악마에게 매어있는 자들이 다 그러함이라. (모로 7 : 16, 17)

모로나이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초기에도 그러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는 몇몇 장로들이 지상에 널리 퍼져 있는 자기 다른 영들의 나타남을 이해하지 못하자 주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인 현상이란 성도들 가운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를 가리켜 시현이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50편 23절과 24절에는 그

으실 때는 그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세우신 합당한 경로를 통해 그것을 전하십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총관리 역원을 통해 스테이크 부장이나 선교부장에게 전달되며, 다시 와드나 지부로 전달되고, 이것이 합당한 경로를 통해 교회 회원에게 전달되어 그들은 확실히 이를 알게 되고 이로 인해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총관리 역원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총관리 역원이 신전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설 때, 그러한 성스러운 모임에서,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되어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은 때란 단 한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합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성신에 감동되어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한 결정이 참으로 주님의 영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총관리 역원의 말이라면 모두가 주님의 마음이요 뜻이 된다고 하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 보십시오. 성신에 감동을 받은 말씀이라면 경전의 말씀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뜻이요,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표준 경전으로 진리를 짚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등 교회의 표준 경전에 근거를 두지 않은 어떤 교리를 주장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의 주장이 다만 사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리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사람은 교회의 대관장뿐이며, 그가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 선언하게 되고, 그것이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받아 들여지게 되며, 다시 교회 회원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만일 어느 사람이 교회의 표준 경전과 모순되는 교리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똑같은 방법으로써 그것이 거짓이며, 진리로 받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는 이러한 새로운 교리나 가르침이 다른 경전의 요구와 부합되며 성신의 감화를 받은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성신의 증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고인이 된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각 회원의 몸에 있는 성신의 증거를 통해 의견을 제기한 형제가 ‘성신의 감화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며, 때가 이르면 그러한 지식은 명백해집니다.” (“교회 지도자의 저서나 설교는 언제 경전이 되나?” 신학원 요원에게 하신 말씀, 브리감 영 대학, 1954년 7월 7일, 13페이지)

같은 주제에 관해서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고 강한 신앙과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순수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며, 여러분에게 부여된 신권과 능력에 따라 부름에 관련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신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하나의 것털이 뜨거운 열에도 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속이거나 멸망으로 인도하지 못하

게 될 것입니다.” (설교집 7:277)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처럼,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일을 대행할 권능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신권의 의식을 집행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기에 부끄럽지 않는 깨끗하고 청결한 그릇이 되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할 책임까지도 주어졌습니다.

신권 소유자인 여러분은 교회 대관장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부끄러워 할 만한 장소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간증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를 받은 교회 대관장으로서 나는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으로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임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의 신권이 이 교회에 있고, 그것은 그러한 권능을 회복하러 온 사자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해져서 지상에 있는 모든 성실한 자에게 구원의 의식을 집행해 왔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이웃이나 친지에게 전함으로써 복음 전파에 기여하는 길이 주님에게 진 부채를 갚는 우리의 태도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물이 바다를 채우듯 진리가 땅을 뒤덮게 될 날이 속히 이르게 되리라는 고대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리며, 성실한 신권 형제님들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아멘. 〰

성도들에게 주는 권고

해럴드 비리 대관장



1974년 7월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독일의 심장부인 뮌헨시에서
말일성도 앞에 서게 되니 기쁜 마음
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교
회 본부에서 온 사람을 제외하고도
유럽의 8개국 이상의 회원들이 모인
보기 드문 대집회를 갖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독어, 이탈리아어, 불
어, 스페인어, 화란어, 영어 등 적어
도 여섯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
들이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의 국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갈라
디아 성도들에게 한 다음과 같은 말
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너희가 다 믿
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
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너희
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
주자나 남자나 여자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
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 3 : 26-29)

단합된 교회 회원

위의 말을 이 자리에 모이신 여
러분에게 적용해 보기 위해서 나는 사
도 바울의 표현을 빌어 말씀드려 보
겠습니다. 우리는 영국인이나 독일인
도 아니요, 불란서인이나 화란인도
아니며 스페인인이나 이탈리아인도 아
니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의 침례받은 회원으로 뭉쳐진 성도입
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언
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약속대



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는 모
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 따른 신권 의식을 집행할 수 있
는 권능을 지닌 자에 의해 침례를 받
았습니다.

놀라운 과학의 발전으로 이처럼 여
러 나라의 사람이 모여 갖는 대회도 가
능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앞으로 과
학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한
나라 말로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각
기 자기의 말로 듣게 될 수 있는 기구
도 갖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날
이 온다면 바로 오순절과 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생존해 있을
때 오게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과히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회를 갖기
위해서 교회 본부로부터 온 형제들과
협조해 가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역 대회를 갖는 이유

왜 이러한 지역 모임을 갖는지 의
해 하시는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우

리는 전세계적으로 교회 회원이 증가
함에 따라 교회가 있는 여러 지역에까
지 우리의 손길을 미치도록 계획을 세
웠습니다. 소수의 회원으로 교회가
조직되어 143년이 흐른 지금 전 교회
의 회원 수는 삼백만명으로 증가되었
으며, 이들은 세계 도처 78개국에서
17개국어를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지역에 가서 대회를 개
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개최되는 총회에 참석할수
있는 사람보다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큰 축복인 스위스 신전

베른시 근처의 줄리코펜 교회 지
역에 신전이 있어 각국 성도들이 교
회 본부 근처에 있는 신전에서와 똑
같이 신전 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런던이나 섬나라에서도 마찬
가지입니다.

기적과 같은 교회 성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은 계속되
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
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한
자녀가 많은 이 나라에서 복음이 전
파되지 않다가 이제 문이 열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 큰 뜻이 있다고 느껴
집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친구가 생
기고 복음 사업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행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의문이 생길 때 나

는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자손이 번창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회상해 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웃으면서 주님께 사라의 나이가 90이 넘었으니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창 18 : 13, 14) 하셨습니다.

주님은 노력하는 인간에게 방편을 주심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사업이 주님의 사업이요, 그가 인간에게 계명을 주실 때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자녀가 스스로를 돕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한다면 그들의 노력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인 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 고대 예언자 니파이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깊은 말씀을 주시으로써 자신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지런히 기록하여, 우리들의 자녀와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권고하였음이요,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

성도의 벗 1974년 7월호

게 됨을 앎이라”(나이 25 : 23)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에 의존할 수 있다고 한 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할 때 구원을 주시려고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으나, 이러한 구원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 현세의 생활에서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하여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언자 엘마는 이 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뜻깊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세의 생활

은 시험의 생활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었고 우리가 말한 대로 죽음에서의 부활 이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느니라”(앨 12 : 24)

하늘의 사자는 어린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복음을 회복하는 목적이 “백성들에게 복천년을 준비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 정사, 4 : 537) 오늘날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왕국의 사업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업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 그것을 선포하고 지시했을 때 수백만의 백성들이 그의 사명의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그를 통해 회복된 값진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려 받을 자로다가 올 복천년에 대비하며 살아 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길을 잃지 말자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한 나의 선교부장의 말에 크게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자신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며 권능의 선에 대해서 거짓 주장을 일삼는 거짓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 그러한 일을 피하며 여러분을 의로운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에서 여러분이 보호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니, 다음의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권위를 가진 자로부터 성임되고 또 저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의 머리되는 자들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자에게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려 나가거나 나의 교회를 세울 권

능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교성 42:11)

여러분을 의로운 길에서 이탈시키려는 사람이 있으면 위의 말씀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교회의 3대 대관장인 존 테일러 대관장은 브리감 영의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왕국의 열쇠는 아직 여기... 이 교회에 남아 있으며, ...주님께서 지상에 회복하신 성신권과 사도직이 아직도 남아 그것에 의해 인도되고 다스려지며, 그가 세운 교회의 의식이 집행됩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제임스 알클라크 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5년] 2:29)

그러므로 나는 성실한 성도 여러분께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이끌 목자를 남겨 두시지 않고는 여러분의 결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목자들은 이 사업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으며, 주께서 지시한

대로 목자들이 그의 사업을 인도하고 지도하도록 주님은 그의 손길을 미칠 것입니다. 그는 매우 분명하게, 그의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간증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를 받은 교회 대관장으로서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으로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임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의 신권이 이 교회에 있고, 그것은 그것을 회복하러 온 사자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해져서 신권에 의해 지상에 있는 모든 성실한 자에게 구원의 의식을 집행해 왔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이웃이나 친지에게 전함으로써 복음 전파에 기여하는 것이 주님에게 진부채를 갚는 우리의 태도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물이 바다를 채우듯 진리가 땅 위를 덮게 될 날이 속히 이르게 되리라는 고대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훌륭한 대회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리며, 여러분께 축복을 기원합니다. 아멘. ㉞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간증을 굳건하게 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몇 년 동안 나는 유럽의 아름다운 풍물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말일성도들의 아름다움에 견줄 만한 것은 못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복음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간증의 힘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온기와 우정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루신 형제, 디디어 형제, 부세 형제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대개가 개종이라는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이나 두통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며, 오늘 이 자리를 떠나 집이나 직장이나 작은 지부나 여러분을 비웃을 동료들에게 돌아가게 되면 다시 외로움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도력의 대가

교회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감추어질 수 없는 산(마 5:14 참조) 위에 세워진 도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은 모두 성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쟁취자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분입니다. 간증이란 개인적인 것이며, 그 책임 역시 개인적인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영국 여왕, 1819-1901)은 “왕관을 쓴 머리 위에는 불안이 떠날 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업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상에 있는 유일하고 참되며 살아 있는 교회”(교성 1:30)라고 선언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외로움을 짊어진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지도력의 외로움을 조금도 회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대처해

성도의 빛 1974년 7월호

나가야 합니다. 복음의 영을 지니고 살아 온 참된 교회 회원이라면 다른 사람과 생활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느낌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간증을 얻은 사람은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양심대로 살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외로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지도자들이 받는 대가는 외로움입니다. 양심에 따라 생활한 대가도 외로움입니다. 간증의 대가도 외로움입니다.

인류의 구속주요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가 구속의 은사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받은 외로움보다 더 큰 외로움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일 년 전에 우리는 리 대관장님과 함께 겐세마네 동산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났던 무서운 투쟁 즉 예수께서 혼자 피땀을 흘리시며 영혼과 싸우시던 상황을 어느 정도 몸소 느껴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임할 수 있는 위치에 부름을 받는 사람이 보인 배신도 다시 상기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잔인한 손이 하나님의 아들에 미치는 것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외로이 십자가에 달리서 괴로움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외치신 구세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종교적인 박해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과감히 대항했습니다. 나는 이들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 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계 14:6)고 한 말씀대로 그러한 날이 오게 기초를 쌓았다고 믿습니다. 과감하게, 그러나 외로움을 안은 채 말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선포한 것은 바로 독일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료나 추종자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군중의 조소를 받아 가면서 외로이 보다 개화될 시대로 길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도 똑같은

고든 비 힝클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외로움을 맛보았습니다. 숲에서 나온 14세 소년은 질투와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 안되는 성실한 추종자들과 함께 외로이 길을 걸어가는 예언자 요셉의 모습보다 더 서글픈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간증하기 위해서 외로이 자신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을 포함한 그의 후계자들도 그들에게 맡겨진 크고 성스러운 책임을 이행하면서 똑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들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은 칩수로써 칭예를 받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관계를 정리할 때 개종자에게 오는 황량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참된 개종자의 자세

나는 약 40년 전 런던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 알게 된 한 친구를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밤비를 맞으며 선교사 숙소를 찾아 왔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그를 맞아 들였습니다.

그는 “난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난 혼자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인데요?”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개종했을 때 아버지는 나를 집에서 쫓아 내시고 다시는 돌아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나는 체육회에서 제명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달에 사장은 내가 이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알고 해고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사귀던 사람이 내가 몰몬이므로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왜 교회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이나, 체육회나, 직장이나, 사랑하는 애인에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있더니, 손을 머리에 갖다 대고는 가슴이 찢어질듯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눈물어린 눈으로 나를 보면서 “그렇게는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이 없어진다 해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비에 젖은 모자를 집어 들고 문을 열고 비가 내리는 밖으로 혼자 떨면서, 그러나 굳은 결의를 갖고 나갔습니다. 그를 보는 나는 양심의

의로움, 신앙의 의로움, 개인적인 간증의 힘이 갖는 의로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간증에 진실하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특히 젊은 남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으로서 많은 의로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가 오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세상의 소수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위의 사람이 모두 미덕을 손가락질할 때 미덕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이 모두 근엄을 비웃을 때 이를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이 온통 편주의에 편승하여 의로운 원리를 버릴 때 온전함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천시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거룩함을 간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의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살아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원리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간증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 가지 않는다면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과 실망, 상실, 두통이 있을지 모르나 그 뒤에는 화평과 위안과 힘이 따르게 됩니다.

의로움은 화평을 줌

형제 자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 말고...”(딤후 1:7-8)라고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 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이므로 너의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교성 84:88)

이것은 약속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그 약속이 진실한 것임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암흑의 세상을 벗어 나와 영원한 복음의 빛 가운데로 들어 선 여러분과 이 세대의 가장 큰 희망인 젊은 남녀 개종자 여러분에게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혼자 걸더라도 두려움 없이 걸고, 그러한 원리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오는 화평을 느끼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빌 4:7)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이 일은 그의 사업이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살아 계신 예언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이 일상 생활을 하실 때나, 혼자 걸으실 때라도 진리와 신앙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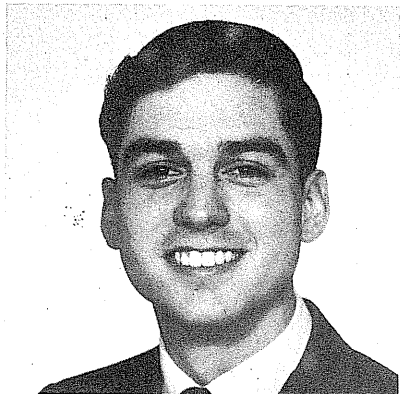
에드워드 패트리지가 감독의 부름을 받은 후에도 감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패트리지 감독을 관리 감독으로 부르신 것입니까?

디 마이클 퀸

교회 역사와 역사 연구원



1974년 7월호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곧 에드워드 패트리지가 교회의 초대 관리 감독이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교회사를 살펴 보면 그가 1831년에 관리 감독이 되어 1840년까지 그 직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그 다음으로는 뉴엘 케이 휘트니가 관리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 및 발전에 관한 문서에 의하면 에드워드 패트리지는 실제로 교회의 관리 감독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교회의 관리 감독이란 직분은 1847년에 확립된 것입니다. 교회의 최종 관리 정의회로서 교회 전체 감독인 지역 관리 직분 다음으로 생긴

성도의 벗 1974년 7월호

것이 관리 감독 직분입니다.

교회 전체 감독 직분은 교회 초기에 본부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와 미조리주 인디펜덴스 두 곳에 있었기 때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1831년 이 두 본부에는 각기 1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주와 미조리주에 있었던 교회 조직은 결국 두 개의 본부 개념을 낳았습니다. 에드워드 패트리지가 1831년 2월 4일 교회의 감독으로 지명되었으며(교성 41:9) 그해 말에 미조리주 지역의 성도들을 관리하러 떠났습니다. 1831년 12월 31일 뉴엘 케이 휘트니가 커틀랜드 지역을 관리하도록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834년 교회의 두 본부에서는 각각 회장단과 고등 평의회도 재조직되었습니다.

한 감독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권능을 행사했는지는 기록상의 근거가 없어 알 수 없습니다. 두 지역 지도자들의 연석 모임이 있을 때에는 두 감독이 다만 시온의 감독과 커틀랜드의 감독 혹은 교회의 감독으로 함께 그들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미조리주의 고난을 겪은 후 성도들은 일리노이주로 옮겨 갔고, 여기서 감독의 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나부의 각 와드와 인근 스테이크에서 감독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패트리지 감독이 사망했을 때 교회 전체에는 감독 아홉 명이 있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1841년 1월 19일 계시를 받아 조지 밀러를 "...중 에드워드 패트리지에게 한 것같이 감독의 직분"(교성 124:21)에 성임하였습니다. 이 직분은 지시에 따라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두 명의 전체 감독 이외에, 여러 감독

들이 부름받은 형태를 계승한 것입니다.

전체 감독의 역할이 지속되면서 후일에 교회의 관리 감독을 부르라는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빈슨 나이트,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 사드락 라운더를 너희에게 주어 만일 저가 받아 들이면 감독회를 관리하게 하노라..."(교성 124:141)

그렇다면 이 경륜의 시대의 최초의 관리 감독을 빈슨 나이트로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가인 올슨 프랫이나 존 테일러 대관장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이트 감독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관리 감독의 직분을 맡지 않았고 교회의 세 번째 전체 감독으로 봉사했습니다.

나이트 감독이 사망하고 성도들이 나부를 떠난 후 뉴엘 케이 휘트니가 관리 감독으로 지지되었습니다. 1847년부터 그는 관리 감독의 일을 시작하여 다른 감독과 교회의 세상적인 일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는 보좌를 두지 않고 일했으나 브리감 영과 히버시 킴블이 고문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휘트니 감독의 뒤를 이은 각 관리 감독은 보좌를 불렀으며, 그 이래로 관리 감독단은 오늘날과 같은 기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

계시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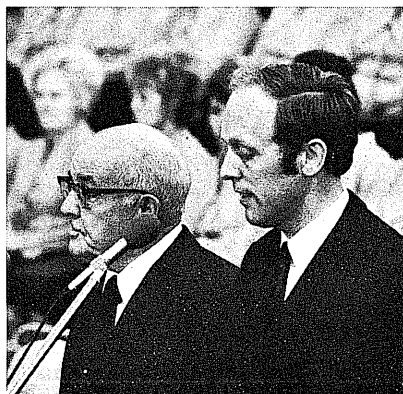
여러 나라에서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특히 가장 역사가 짧은 스페인 선교부에서 오신 가장 소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먼저 스페인에서 오신 회원 여러분께 간단한 메시지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스페인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일어나라 주의 성도”(찬송가 239장)라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나는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닌 위대한 사명과 책임감을 일깨워 주는 계기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금요일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 주시고 무용을 하신 젊은이들에게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 주신 합창대와 그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955년 우리는 유럽의 10개 선교부를 방문하면서,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나라에 머물러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 하라고 권고하였으며,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충만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유럽에서의 교회 발전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 왔습니다. 10개의 선교부가 24개로 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스테이크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1개의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두 곳에서 신전을 헌납했으며 지역 대표,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으로 이 지역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 온 성장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지하는 주님의 선택된 예언자 해롤드 비리 대관장을 함께 모시는 가운데 이러한 대회를 갖는 큰 축복을 받았읍니다.

인간은 빛을 찾아야 함

고대의 경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7)

예언자 아모스에게 주어진 이러한 조건이 딸린 약속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 왔읍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어”(물 9:9)라는 말씀으로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나 백성이 이를 수 없는 일이라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자

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주의 기 울이지 않고 있으면 해를 볼 수 있는 대낮과 같은 때에도 캄캄한 암흑을 헤매게 됩니다.

태초부터 세상 사람은 빛과 암흑 중 하나를 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극히 짧은 기간만 빛을 택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캄캄한 암흑 속에서 보냈읍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암흑을 깨치고 나오겠다는 소망과 노력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결정의 자유를 허용하였으므로 주님은 그들이 스스로 빛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읍니다. 그러나 인간이 의에 주리고 겸손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드릴 때에야 주님께서서는 지평선을 밀어 버리시고 장막을 거두셔서 인간을 장벽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옛 경륜의 시대

그러한 때는 위대한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속박을 끊고 밝은 하늘의 빛을 들어 오게 하여 이 세상을 몇 대 동안 밝게 비치게 한 때였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속박 생활 4세기가 지난 후 다시 이스라엘 자녀에게 배도가 일자 영적인 태양이 사라치고 암흑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아들인 모세는 사막에서 은신처를 찾았고 말 못하는 짐승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는 데도 외로운 예언자들은 수 세기에 걸쳐 광야에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과 벗을 삼았으며, 그의 양에게 먹일 풀이나 물을 찾다가 불붙는 숲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한창 일어날 때 그는 험난한 시내산에 올랐으며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종인 예언자에게 비밀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던 문은 고장이 났고 들쭉꾸는 녹이 쓸었고 먼지와 잡초로 문이 가리었습니다. 인간이 주님을 도외시키고 거부하고 접촉을 끊자 하늘의 문이 닫혔고 영적으로 황폐한 광야로 둘러 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산발적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예언자의 외침이 수 세기 동안 광야를 메아리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로운 별이 반짝였고 밝은 빛이 세상에 내리비쳤습니다. 별, 달, 해가 이에 경배를 드렸고 하늘의 밝은 빛이 사방을 두루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을 걸었고 하늘과 땅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사라지자 하늘이 닫히고 암흑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영적인 암흑 시대는 “암흑으로 인하여 빛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지라, 촛불이나 횃불이나 잘 마른 나무에 불을 질러도 전혀 빛을 내지 못한”(니삼 8:21) 니파이인 역사상에 나타났던 암흑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암흑의 힘은 뚫을 수가 없었으니, 수 세기가 흑암을 깨뜨릴 수 없는 회미한 촛불도 없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회 복

다시 날은 밝아 간절한 열망을 지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숨겨졌던 은밀한 장소가 발견되었고, 무릎을 꿇고 기도가 드러졌으며, 마음이 겹손해졌고, 하나님에게 호소가 전해졌으며, 대낮 보다도 밝은 빛이 세상을 비쳤으니, 장막이 거두어졌고, 이

빛은 다시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견줄 수 없는 강한 신앙을 가진 어린 소년이 오랜 암흑의 벽을 깨치고 철의 하늘을 부셨으며 다시 대화의 길을 터 놓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교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빛이 암흑을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인간에게 비밀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새로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이 땅에 있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망되거나 다른 백성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영원한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이 왕국은 영원하며, 왕국을 건설케 한 계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시 태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인간은 창조주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자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계속 뒤를 잇게 되고 주님의 비밀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를 받아들이라

현대의 수많은 종파 분리자들도 아브라함, 모세, 바울을 믿으나 그들과 같은 시대에 살고있는 오늘날의 예언자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고대인의 파오였습니다. 그들도 역시 과거의 예언자를 받아 들였으나 그들 가운데 있는 예언자를 십자가에 달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회원 중에서도 세상을 떠난 예언자의 무덤에는 꽃을 바치며 장식하나 살아 있는 예언자에게는 관심을 돌리지 않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 사업의 기초를 놓으면서 매일같이 ‘주께서 이같이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같이 이르노니’라고 항상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신의 권세로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 그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계시며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우드럽 대관장 자신이 받은 계시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매우 중요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 계시를 받은 이래… ‘주님께서는 시현과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일을 계속하라고 명하셨으며 …나는 주님 앞에 섰고, 나는 주님이 쓰라고 하신 바를 기록하였습니다.” (메저렛 뉴우스, 24:4, [1891년 11월 7일].)

조용히 오는 계시

오늘날의 많은 사람은 천둥과 번개를 수반한 시내산에서의 장관처럼 계시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문둥병이 치료되기를 바라는 옛 시리아 군대장관 나아만과도 같습니다. 그는 예언자 엘리사가 그가 가지고 온 추천장, 그의 재산, 그의 직위, 그의 명예, 그를 수종드는 종들의 행렬을 무시하는 것을 보자 놀랐습니다. 예언자 엘리사는 그의 종을 보내 나아만을 만나 다음과 같은 말만을 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열하 5:10) 화가 난 나아만은 이렇게 불평하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열하 5:11) 그러나 극적인 치료 장면이나, 굉장한 전신나 과시는 볼 수 없었으며, 나아만은 자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에 그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받아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많은 사람은 놀라운 영적인 나타내심을 통해 계시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나 밤의 암흑을 몰아내는 여명처럼 예언자의 마음속에 조용히 임하는 계시는 모세의 시대이건 요셉의 시대이건 오늘날이건 계시로서 받아 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타는 숲이나 연기가 나는 산, 배 발 가진 짐승(행 10:11-12 참조), 구모라산, 커틀랜드의 일은 모두 실제에 있었던 일로 이것들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계시가 모세와 요셉, 오늘날의 예언자에게 조용한 방법으로, 극적인 광경이나 장관을 통하지 않고, 깊은 감명을 주며 전해졌습니다.

항상 장관만을 기대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끊임없이 주어지는 계시를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신전 모임에서는 성스러운 기도와 금식을 한 후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새로운 선교부와 새로운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으며, 새로운 방향과 정책이 수립되었고, 새로운 신전 설립이 승인되었으며, 새로운 역원이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흔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며 단순한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 석상에 앉아서 예언자가 드리는 성스러운 기도와 하나님의 종이 드리는 간증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의 결정과 선언의 현명한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가 예언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로써 새로운 중요한 사항을 결정지을 때 이를 듣는 사람은 정말로 그가 예언자임을 알게 됩니다.

계속되는 계시

복음을 회복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로부터 오늘날의 예언자인 해롤드 비리 대관장에 이르기까지 대화의 선은 연결되어 왔고 권능이 지속되어 왔으며, 밝고 꿩눈 빛이 계속 비추어져 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계속 평화로운 음성으로 감미롭고 화평스러운 선물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근 1세기 반 동안에 이러한 것이 중단된 때가 없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 그러한 변화가 올 때는 조용하고 고요한 확신이 임했

성도의 빛 1974년 7월호

고, 하늘의 평안이 진실로 믿는 자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위대하고 선량한 사람이 최고의 권능을 받고 새로운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하늘의 열쇠가 그들의 손에 쥐어졌을 때 권능의 소리가 그들의 입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모두 자신이 속한 왕국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예언자를 부르셔서 그의 비밀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하며 내일도 같은 방법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 3:7)

예언자인 리 대관장

일년 조금 전에 이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이시며 10대 대관장이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에 주님의 왕국의 예언자이며 교회의 11대 대관장으로 해롤드 비리 대관장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10월 대회의 성회에서 많은 말일성도와 세계 도처에서 모인 말일성도 대표들이 이 예언자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지명에 공식적인 지지와 찬성을 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대한 예언자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특권을 받았으며 성스러운 의무도 아울러 갖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종종 부릅니다.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아 성임된 해롤드 비리 대관장이 거룩하고 사랑하는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라는 사실을 진지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圖

“따라서 우리는 ... 이 위대한 지도자인 예언자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엘 에드워드 브라운
선교부장

지난 3년 동안 한국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뜻깊은 우정을 나누어 왔으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살아계시고 계시로써 그의 사업을 이끄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과 나는 한국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 국민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실한 회원인 여러분의 위대함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한국을 떠나면서 이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한국 지도자의 손으로 훌륭히 인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선교부 산하 각 지방부는 영적이고 헌신적인 주님의 종인 지방부장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서울스테이크는 확고한 기초를 닦았고, 유능한 지도자이신 이 호남 부장, 그의 두 보좌, 기타 여러 스테이크 지도자와 헌신적인 감독의 지도력으로 급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에서 주님의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가정이 가정의 밤을 갖게되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도 실질적이고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재인식되었습니다. 신학원도 탄생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국 국민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뜻깊은 관계로 유대를 맺도록 도와야 합니다. 눈앞에 발전의 모습이 역력합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이룬 업적이 참으로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그의 복음의 힘을 나타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한국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다 빨리 그의 사업을 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를 갖추어 교회에 들어 올 수많은 사람들에게 뜻깊고 헌신적인 지도력을 보일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조국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참다운 사랑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귀국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메시지는 백성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성스러운 경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오랜 세월동안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전해 내려 왔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